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09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2년 하반기 뉴스레터

- 학교소식
- 1 학술/연구/교류
 - 2 수업소개
 - 3 교수통정
 - 4 교수출간
 - 5 석·박사과정
 - 6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 동문소식
- 1 동창회
 - 2 석·박사 과정 동문 통정
 - 3 고위정책과정 동문통정
 - 4 동문출간

- 인터뷰
- 1 환경계획학과 Sofia T. Shwayri 교수
 - 2 환경정책학과 Wybe Kuitert 교수



발행인 이도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발행일 2012년 9월 18일 담당교수 김광중 이유미 이희연 조경진 출력물디자인 김현정
학과조교 문미라, 박주현, 원세형, 박윤미, 한명주 고위정책과정 조교 김 배 학생기자 손슬기, 허윤서 E-Design 흑석동작업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TEL | 02-880-5642 FAX | 02-886-7935 <http://gses.snu.ac.kr/>

발행인 이도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발행일 2012년 9월 18일

담당교수 김광중 이유미 이희연 조경진

학과조교 문미라, 박주현, 원세형, 박윤미, 한명주

고위정책과정 조교 김 배

학생기자 손슬기, 허윤서

E-Design 흑석동작업장

출력물디자인 김현정

학교소식	학술/연구/교류	4
	수업소개	14
	교수동정	17
	교수출간	20
	석·박사 과정	23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0
	동문소식	31
동창회	31	
석·박사과정 동문동정	33	
고위정책과정 동문동정	36	
동문출간	37	
인 터 뷰	환경계획학과 Sofia T.Shwayri교수	40
	환경조경학과 Wybe Kuitert교수	44

학교 소식

1

학술/연구/교류

환태평양 커뮤니티 디자인 네트워크 국제회의 개최 Pacific Rim Community Design Network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서울그린트러스트 및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와 공동주최한 '제8회 환태평양 커뮤니티 디자인 네트워크 국제컨퍼런스'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중국, 홍콩, 오스트리아, 독일 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코엑스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되었다. '환태평양 커뮤니티 디자인 네트워크 국제회의'는 1998년부터 시작한 국제행사로, 공간환경의 시대적 변화를 커뮤니티 관점에서 조망하여 새로운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2~3년 간격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인 '그린커뮤니티디자인'은 개발주의시대를 뛰어넘어, 마을만들기와 장소만들기, 녹색도시계획과 정책,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커뮤니티 중심의 새로운 경향들을 반영하였다. 특히 '그린'은 단순히 공간으로서의 녹색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서, 그리고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가치라는 개념으로서 논의되었다.

첫째 날(22일)은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양병이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이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열렸다. 이후 조한해정 연세대 교수의 '블록 어택(Block Attack)으로 파괴된 도시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시론'이라는 기조연설로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이재준 수원시 부시장 '도시에서 마을까지 - 새로운 수원시 커뮤니티 디자인 경험' ▲랜돌프 헤스터 미국 버클리대 교수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색깔은?'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서울' ▲안드레이 시버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대 교수와 스테판 독일 조경가 '새로운 도시 문명의 표현으로서 도시농업' ▲츠토무 시게무라 일본 가나자와대 교수 '커뮤니티와 지구를 위한 공유의 장으로서의 건축' ▲알반 마니스 프랑스 SEWOO 대표 '적실한 경관을 위한 조정' ▲제프리 휴 미국 워싱턴대 교수 '마을공유자산으로서 녹색공간과 환태평양지역의 공동작업' ▲존 류 대만대 교수 '참여 : 디자인과 공정성의 현실이슈들' ▲이영범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한국 커뮤니티 디자인의 이슈: 도시재개발 vs 커뮤니티 재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주제발표는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린커뮤니티디자인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정보교류의 장이 되었다.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이석현 중앙대 교수, 김영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 홍승모 도시연대 커뮤니티 디자인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시민참여, 도시농업, 거버넌스 등 현 시대의 과제와 대안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학생, 시민운동가들이 함께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둘째 날(23일)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국내외 70여명의 전문가들이 '커뮤니티 디자인을 둘러싼 8가지 이슈'로 8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미국, 대만, 일본 등 국외 32건, 국내 36건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환경전문가, 학생, 시민운동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그린커뮤니티디자인에 대한 이론과 현장의 사례, 민·관·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션별 주제는 ▲세션1 커뮤니티디자인의 새로운 지평 ▲세션2 가드닝에서 도시농업까지 ▲세션3 공동체리더십과 거버넌스 ▲세션4 녹색디자인과 지속가능공동체 ▲세션5 커뮤니티디자인과 장소만들기 ▲세션6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계획 ▲세션7 커뮤니티 정치와 민주주의 ▲세션8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 등이다.

마지막 날(24일)에는 현장답사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4개의 현장답사는 난지노을공원, 문래동 도시텃밭과 한강 노들섬 등의 A코스, 남양주시 연꽃마을과 부영배 마을의 B코스, 성미산과 홍대거리, 경의선공원의 C코스, 서울광장, 서울숲과 청계천의 D코스로 이루어졌으며, 각 코스의 현장방문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커뮤니티 디자인 사례를 체험하였다. 답사 후 모든 참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3일간의 생각을 마무리하는 종합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그린커뮤니티디자인 서울선언의 발표와 함께 다음을 기약하며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시, 서울연구원, 문화관광부, (주)예건, 데오스웍스, 현대건설, (주)그룹한에서 후원했다.

서울대-북경대-교토대 제6회 환경 워크숍



지난 7월 23일 환경대학원에서 서울대-북경대-교토대 환경 워크숍이 열렸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 워크숍은 동아시아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를 공유하고 한-중-일 대학생 및 연구원, 교수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여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작년 여름에는 북경대 심천캠퍼스에서 열렸으며, 올해에는 환경대학원이 주관하여 행사가 개최되었다. 환경대학원에서는 홍종호 교수를 비롯하여 환경관리와 도시및지역계획 전공에서 공부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 학생 19명이 참석했으며, 북경대학에서는 루안 성지(梁胜基) 교수와 후양 이(黄艺) 교수를 포함한 26명의 학생이, 그리고 교토대학에서는 모리 아키히사(森 晶寿) 교수와 4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환경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북경대, 교토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신들이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신희영(환경관리 석사과정) 학생과 지아 진(贾珺, 북경대 석사과정) 학생이 사회를 맡았으며, 8시간 동안 총 15개 논문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북경대 학생들은 미세먼지, 저탄소 지표, 그린웨이(Greenway) 등 중국의 도시화에 따른 이슈에서부터 농업과 물/에너지, 생태농업을 위한 협력, 전원 관광(Rural Tourism) 등 농촌지역의 변화 및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다. 한편, 교토대에서는 전자전기제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환경관리의 기준 제안, 친환경 커피 인증제도, 환경 정보 공개 프로그램 등의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 대학원에서는 총 4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주제는 “휴대전화 전자기파가 꿀벌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경민·노지현, 환경관리 석사과정), “기후변화와 한국의 속담”(김고운, 환경관리 석사과정), “침엽수림과 혼효림 유역에서 하천수의 화학적 조성 비교”(정윤아, 환경관리 석사과정),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유경, 도시및지역계획 석사과정) 등으로 다양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한-중-일 3개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및 도시 문제를 확인하고 각국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24일과 25일에 걸쳐 이어진 광릉 국립수목원과 청계천 등의 현장 답사에서는 한국의 환경관리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제6회 환경 워크숍을 통하여 한-중-일 학생들은 서로 간에 뜻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내년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회 워크숍에서 재회하기를 기약했다.

교통관리 전공의 학술활동



교통연구세미나 지난 4월 20일 금요일 오후, '제16회 교통연구세미나'가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개최되었다. 교통연구세미나는 교통관리전공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통관리전공 및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후원하며, 매년 2회씩 개최해왔다. 지난 16회 동안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은 총 168편에 달한다. 16회 세미나는 김성수 교수의 개회사와 한국교통연구원 이창운 부원장(계획 13회, 교통동문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교통관리전공 석·박사과정 재학생의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이선영은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량이 교통사고처리시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4개 노선의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하여 교통사고 유형, 원인차량 차종, 교통량 등이 교통사고 처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고발생시 복구 가능한 시간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출발시각이나 경로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정인택은 '보행여건에 따른 혼잡비용 추정방법에 관한 기초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도시내교통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부족했던 보행교통에 대해 혼잡비용 추정방법으로 2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유신 배성일 부사장(계획 14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문대섭 박사(계획 16회), 중앙대학교 김태완 교수(계획 27회), 한성대학교 남두희 교수(계획 24회)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발표논문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진행하였다. 최우수논문상은 '대중교통 통합거리비례요금제 시행 후 교통수요 탄력성 분석에 관한 연구(김중태 박사과정)', 우수논문상은 '기종점통행량 신뢰도 개선을 위한 교통존 및 네트워크 설정방안 연구(성기범 석사과정)'가 선정되었으며 소정의 교통동문장학금이 수여되었다. 마지막으로 임강원 명예교수의 격려사와 이영인 교수의 폐회사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교통관리전공에서는 매월 1회씩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은 교통·물류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을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구분야에 대해서 토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2년 1학기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철도경쟁체제, 교통시설 지하화, 신교통수단, 교통통계 등의 주제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총 4회(제18차-제21차)의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제18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3월 12일 월요일, '철도 경쟁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철도운송사업 경쟁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재훈 박사(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의 강연발표와 김성수 교수, 홍종호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이재훈 박사는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철도망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철도운영부분의 효율화, 안전시스템 개선, 기술수준 향상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철도분야 공공독점의 폐해를 해소하고 철도투자확대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경쟁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철도운영적자의 발생요인으로 철도공사의 부채증가, 인력과다, 저생산성, 소극적인 경영개선이지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엔 실현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김성수 교수는 철도산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밀도의 경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로 구분하여 검토하였고, 우리나라의 민영화사례, 외국의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며, '경영자율성이 높아질수록 효율성은 높아지고, 정부의 보조금이 높아질수록 인건비가 높아진다'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민영화로 인한 장점을 부각하였다. 홍종호 교수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정부실패 뿐만이 아닌 시장실패 사례도 있으며 적자폭이 큰 일반철도에 대한 민영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공기업 민영화라는 정치적 이슈에 관해, 현 정권 말기의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철도 경쟁도입방안에 대한 경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19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4월 9일 월요일, '교통시설 지하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 평가: 철도사업을 사례로'라는 주제로 장수는 교수의 강연발표와 김호정 박사(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장수는 교수는 지상철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부터 철도 시설의 지하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철도 지하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편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 하였다. 이에 철도 지하화의 편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효과를 논의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신뢰성과 정책적 수용성을 만족하는 평가방법론을 개발하며, 이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원단위를 추정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연구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성봉 교수는 교통시설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은 효과 대비 비용, 즉 경제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데 철도시설은 효과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그동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시대에 따라 의사결정의 기준이 변하기 때문에, 교통을 사회 인프라라기보다는 복지의 맥락에서 다루는 최근의 움직임을 이야기 하며 이 연구가 매우 시의성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김호정 박사는 본 연구가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편익 항목을 발굴해내기 보다는 기존 편익항목의 원단위를 증가시키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20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5월 14일 월요일, '신노면대중 교통시스템 비교분석: 대안은 Surface, Share, Safety'라는 주제로 안정화 박사(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 부연구위원)의 강연 발표와 조남건 박사(계획 14회,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 연구본부장), 백승걸 박사(계획 26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교통연구실 팀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안정화 박사는 철도 및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신노면대중교통시스템의 특성소개,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프랑스의 다중분석방법인 ELECTRE III 방법을 적용한 신노면대중교통시스템의 비교분석, 시사점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 조남건 박사는 철도의 기술적 분야에 대한 특강을 들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으며, 백승걸 박사는 교통복지, 녹색성장 측면에서 철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철도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1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6월 4일 월요일, '국가교통통계 산정기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찬성 박사(계획 25회,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조사분석사업단 센터장)의 강연발표와 이영인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류시균 박사(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부장)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찬성 박사는 교통통계는 사람들의 알 권리 충족, 현상분석, 정책방향 설정 및 모형구축을 위한 기초지표 등으로 활용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교통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교통통계의 항목 선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류시균 박사는 신규 통계항목별 산정방법론을 적용하여 과거 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통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교통통계와 관련하여 단기 연구가 아닌 장기 연구로 확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영인 교수는 또한 교통통계 조사의 항목, 규모, 수집 등 방법론에 대한 지침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불성실한 조사가 없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질의 응답을 나누며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콜로키움을 통하여 다양한 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조경학과 해외조경가 초청 특별강연

영국 조경가 Charles Jencks 특강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대표적 건축이론가이자 비평가, 작가, 조각가 그리고 지형디자이너로 불리는 Charles Jencks의 특별강연이 3월 12일 서울대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개최되었다. 교내의 조경, 건축학과 학생 및 교수가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는 Jencks의 작품과 설명을 직접 접할 수 있었으며, 특히 Jencks 팀이 설계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내 순천만호수의 이미지 컷을 만나볼 수 있었다. Jencks는 "조경은 작품을 통해 아주 커다란 것과 아주 작은 것 즉, 대우주와 소우주 사이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조경가이기 보다는 지형디자이너로 나의 정원디자인은 예술과 지구 및 생태 자연과 같은 우주에 기반하고 있으며, 나는 내 작업 자체를 'Landforming'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Landforming"은 자연에 관하여 사색하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예술로서, 형태를 만들고, 미적이게 다루고, 또 결과를 통해서 이용성을 찾아내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사물을 사람의 신체와 마음 그리고 자연에 관계하여 생각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작업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Jencks의 작품에는 우주적 철학관이 형태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자연의 근본적인 형태와 법칙에 관하여 근거한 기본 디자인을 'Zero Nature'라고 설명했다. 이 디자인은 Jencks가 대부분의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형태이기도 하다. 원래 건축가이지만 조경가로의 삶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은 다루는 대상이 달라졌을 뿐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 가지의 직업이 아니라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임을 자처하기도 했다.

미국 하버드대학 Martha Schwartz 특강



세계적인 여성 조경가 Martha Schwartz의 특강이 3월 26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특강에서 Schwartz는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녹지를 잘 조성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즐겁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관이 잘 조성된 공공공간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기능도 할 것”이라며, 도시경관 속 녹지의 가치를 환기시켰다. 이에 대한 세부설명으로 Schwartz는 도시경관의 네 가지 이익, 즉 환경적, 건강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강조 했다. Schwartz의 의견을 종합하면, 먼저 회색도시가 녹색으로 변함으로써 도시는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건강해진다. 그럼으로써 그곳은 하나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탈바꿈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시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제성은 그 공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흥미로우며 중요한 부분이다. Schwartz는 “도시경관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경이다. 조경은 앞으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적 측면에서 보다 폭넓은 의미를 강조해야 한다”라고 강의하였다. 또한 Schwartz는 신간인 'Recycling Spaces: Curating Urban Evolution'에 수록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첫 작품인 '베이글 가든(Bagel Garden)'을 시작으로 '메사 아트센터(Mesa Arts Center)', '피어스케이프(Piersecape)', '그랜드캐널 스퀘어(Grand Canal Square)', '맨체스터 익스체인지 스퀘어(Manchester Exchange Square)', '2011 중국시안세계원예박람회', '길푸 키타가타 아파트(Gifu Kitagata Apartments)' 등을 소개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의도 파크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설명하였다. 특강 후에는 신간 'Recycling Spaces: Curating Urban Evolution'의 저자 싸인회가 진행되었다.

환경생태학 연구실의 연구 활동

이도원 교수를 지도교수로 한 환경생태학 연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빗물 확보와 관리에 관한 3차 학술대회 학술단체인 국제물연합(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은 2012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빗물 확보와 관리에 관한 3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빗물 이용을 주제로 국제공동엑스포가 열린 경남 고성군에서 진행된 학회에서 이도원 교수는 몽골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이란, 중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빗물이용에 관한 선조들의 지혜**”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주관하고 우리나라 전통마을에서 향아리와 연못, 유역 규모의 토지 이용이라는 공간 규모에 따른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빗물 관리 방식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Lee, D., G. Kim, and M. Nam, 2012. Traditional Management Practices of Rainwater at Various Spatial Scales in Korea. A paper presented at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ainwater Harvesting and Management, Goseong, Gyungnam, Korea, 20-24 May, 2012.)

제55회 세계식생과학대회 (IAVS2012) 식생학 분야의 전 세계 연구자들이 모이는 최대학술대회인 제55회 세계식생과학대회 (IAVS 2012)가 2012년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전라남도 주관으로 영암 호텔현대와 목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36개국 429명의 세계 식생학자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와 식생과학**”이라는 주제로 식생보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자연자원의 보전에 있어 중요한 문화생태자원에 대한 보전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학회에서 이도원 교수팀은 생태적·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음나무 개체군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서식지 분포 모델링을 통해 향후 음나무 개체군의 서식지가 기후변화로 파편화되고, 서식지 연결성이 매우 떨어져 기후변화가 종 지속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Kang, W., D. Lee, and C.-R. Park, 2012. Decreased habitat area and connectivity of *Kalopanax pictus* under climate change in South Korea. The 55th Symposium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egetation Science, Mokpo-si, Korea, 23-28 July, 2012.)

제2회 생물다양성 아시아 국제학술회의 보전생물학회(Society for Conservation Biology)는 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2012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인도 벵갈루에서 제2회 생물다양성 아시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아시아 10여 개국 이상의 정부기관과 NGO, 환경전문가 및 연구자, 대학생 등 500여명이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과 연구 진행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였다. 이도원 교수팀은 “**산림성 포유류 서식지의 네트워크 분석 연구**”(Kang, W., D. Lee, and D. Woo, 2012. Habitat network analysis for forest mammals in South Korea. The 2nd Asia Region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Conservation Biology, Bangalore, India, 7-10 August, 2012.)와 “**항공 LiDAR를 이용한 식생분류와 구조 분석 연구**”(Bae, S. and D. Lee, 2012. Detecting, analyzing, and mapping vegetation structure using airborne LiDAR in South Korea. A poster presented at the 2nd Asia Region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Conservation Biology, Bangalore, India, 7-10 August, 2012.), “**서울시 경관패턴과 녹지연결성의 시공간적 변화연구**”(Lee, K., W. Kang, and D. Lee, 2012. Characteristics of spatial and temporal landscape pattern in Seoul, South Korea. A poster presented at the 2nd Asia Region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Conservation Biology, Bangalore, India, 7-10 August, 2012.), “**한국 포유류 식육목의 멸종역사와 복원 가능성 모색, 서식지 보전 방안 연구**”(Woo, D., D. Lee, and W. Kang, 2012. Extinct Carnivore Species in South Korea: Why did they become extinct? The 2nd Asia Region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Conservation Biology, Bangalore, India, 7-10 August, 2012.)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진행된 그간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는 향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자료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석·박사과정 학생의 학술발표

환경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국제학술지와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논문발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 학술활동에 대한 학교의 일부 비용 지원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러한 경향은 환경대학원 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문제인식 및 연구논의가 점차 국제적 맥락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또한 한국의 사례가 세계 학계의 지식축적 과정에 보다 빈번하게 투영됨을 의미한다.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학전공 황세원(박사과정)은 2012년 4월 영국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Urban Design Conference에 참가하여 "Restoration of Urban Streams and Transforming Urban Lifestyle Patterns: Formation, Design and Usage of the Urban Public Landscape of Cheonggye & Yangjae Streams in Seoul"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도심 한가운데 공공공간으로서 복원된 청계천과 주거지역을 가로지르며 생태적으로 복원된 양재천의 두 사례를 통해 도심하천의 복원 과정, 디자인과 의의를 살펴보고 주변도시공간 및 도시민과 주민들의 생활패턴 변화에 대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도시맥락에 따라 다른 이용행태와 만족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도시및지역계획학전공 박순만(박사수료)과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2년 8월 23~25일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개최된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f Urban Planning 2012에 참가하여 "Smart Advantage of free public wifi"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간의 자유 경쟁 시장 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무료로 무선랜을 공공에 제공해야하는 이유를 도시의 지속가능성 원칙인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검토하고자 하였다. 무선랜의 경우 민간사업자 위주 시장인 셀룰러 네트워크에 비해 경제적, 환경적으로 적은 비용과 낮은 에너지 소모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아닌 지방정부가 무료로 무선랜을 공급할 경우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른 정보접근성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조경학과 협동과정조경학 윤정우(박사과정)는 2012년 7월 11~12일 스웨덴에서 개최된 ICSAUDE 2012(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l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Engineering)에 참가하여 'Integrated Method Study of Korean Urban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통합적인 도시디자인 조성 방법을 연구하기위한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정부기관의 역할을 분석하고 건축 및 도시 관련 제도의 관련성을 도출하여 한국 도시디자인의 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협동과정조경학 정승규(박사과정)는 2012년 9월 5~7일 남아공에서 개최된 IFLA 49th(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에 참가하였다. 유명우(석사졸업)공저, 박종화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Wildlife Habitat Conservation Plan of the Seom River Corridor, Korea'를 통하여 4대강 지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횡성 섬강지역에 수달을 대상으로 서식지 적합성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해서 IUCN(International Union of Conservation of Nature)을 기반으로 한 보전방안을 제안하였다.

협동과정조경학 김무한(박사과정)은 2012년 9월 7~9일 태국에서 개최된 3rd IACSC(The International Academic Consortium for Sustainable Cities)심포지엄에 참가하였다. 'Reading Multicultural Landscape: Sense of Territory, Publicness, and Centeredness'라는 주제를 통하여 다문화 경관의 해석을 위한 영역성, 공공성, 중심성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였고, 사례연구로 해화동 필리핀거리의 공간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수업소개

‘수업소개’는 대학원 내 전공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동문들에게는 학교의 교육내용과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에 개설된 강의를 소개한다. 환경대학원의 강의는 사회변화와 학문분야의 추세에 따라 진화해 왔는데, 최근 부임한 신진교수들의 수업은 이러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환경조경학과의 손용훈 교수, 환경계획학과 교통관리전공의 장수은 교수**의 수업을 소개한다.

광역조경계획

환경조경학과에서 조경계획을 주 연구분야로 하는 **손용훈 교수**가 담당하는 “**광역조경계획**”은 매년 1학기에 석사과정 과목으로 개설된다. 광역조경계획은 도시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경계획 스튜디오로서, 통상적인 조경계획의 스케일을 넘어 광역의 대상지를 가지고 자연환경, 사회환경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보전과 현명한 활용이 균형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수업에서는 매 학기 현대사회에서 이슈화되어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필요성이 요구되는 주제와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구분석과 계획실습을 수행한다. 또한 광역적 공간에 대한 분석과 이해 관계자 분석을 함께 행하여 실천적인 계획을 제안하도록 한다. 15주간의 수업 동안 학생들은 강의 참여와 스튜디오 작업 이외에도 사례지 답사와 이용자, 지역주민, 그 외 이해관계자에 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대상지 이슈를 현장감 있게 이해하도록 한다.

2012년 수업에서는 국립공원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제도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하나는 국가가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권 및 관리권의 일부만을 갖고 있는 지역제 공원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과거 경승지가 국립공원의 지정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행락지형 국립공원이라는 점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토지 소유자와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데다 전통적인 행락지로서 이용 수요가 크므로 매우 어려운 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에서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계획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으로 자연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큰 틀을 이해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최근 진행 중인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집단지설지구 이주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이에 관한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송추계곡 일대는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지자체의 유도 아래 조성되었던 유원지였다. 서울시민의 행락지로서 뿌리 깊게 이용되어 오던 이곳은 최근까지 과도한 상행위와 무질서한 이용객 행태로 자연경관의 훼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현재는 국립공원의 구역조정 및 국립공원 내 소재하는 상업시설을 새롭게 시설지구로 조성하여 국립공원 외부로 이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송추계곡 일대는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지자체의 유도 아래 조성되었던 유원지였다. 서울시민의 행락지로서 뿌리 깊게 이용되어 오던 이곳은 최근까지 과도한 상행위와 무질서한 이용객 행태로 자연경관의 훼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현재는 국립공원의 구역조정 및 국립공원 내 소재하는 상업시설을 새롭게 시설지구로 조성하여 국립공원 외부로 이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상지 분석(수환경 분석, 토양환경 분석, 식생분석, 용도지구와 주변토지이용 분석, 관광자원 및 탐방로 분석, 이용자 특성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과 이용자 설문조사, 지역주민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지가 갖는 사회적 측면의 과제와 관리적 측면의 과제를 파악하였다. 특히 이용자 설문에서는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계곡을 찾는 이용패턴에 등산객과 구별된 계곡 이용자가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의 이용프로그램은 등산객에 초점이 맞추어져 단순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지역주민 및 지역상가 면접조사를 통해서도 국립공원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부동산 개발식 이전사업이 국립공원의 자연을 보전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실현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분석과정을 통해 단순히 보호지역 내 개발가능지역으로 집단시설지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큰 틀을 이루며 이에 관한 문화를 육성하는 거점으로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최종발표는 학생들의 계획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현장(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워크숍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외부 참가자는 북한산 국립공원 직원, 양주시 공무원, 조경계획 전문가 등이 함께 하였다.

학생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숲 속 송추마을'이라는 콘셉트를 제시한 팀은 집단시설지구 이전사업과 송추지구 관리계획을 계곡 복원(Phase 1), 이용자 계몽(Phase 2), 지속가능한 이용형태 확산(Phase 3)의 3단계로 설정하여, 숲 계곡 복원사업과 이용자 성숙도를 시간 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계획해가는 내용으로 참신하면서도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송추유원지 두 번째 장'이라는 콘셉트를 제시한 팀은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라는 범위를 넘어 양주시 관광정책 및 지역 만들기와 함께 하는 큰 틀 안에서 송추지구가 갖는 공간의 역할을 부여하며, 국립공원의 이용자 지원 기능과 지역발전의 거점 기능을 함께 갖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다소 이상적이긴 하지만 계곡 숲 생태계(자연환경), 살림 생태계(상업), 사회문화 생태계(커뮤니티)가 함께 조화하는 안을 제시한 점에 있어서 본 과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실천적인 계획안을 지향하는 것이 조경계획 스튜디오로서 본 과목이 갖는 특징이다. 향후 다루게 될 주제와 대상지는 국립공원계획 이외에도 환경공생계획, 생태관광계획, 도시녹지계획, 하천유역 보전 및 활용 계획, 도시 수림지 활용계획,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농촌마을 재생계획 등을 포함한다.

교통계획실습

환경계획학과 교통관리전공 장수는 교수는 매1학기 “교통계획실습”을 강의한다. 이 강좌는 표준적 교통계획 과정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교통계획방법론과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강의는 매주 교수의 이론 강의와 수강생들의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이론교육은 자료구축, 비용추정, 교통수요분석, 편익산정,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 등 표준적 교통계획의 전 과정을 망라한다. 교통계획에 필요한 자료는 공급측면의 네트워크 및 토지이용 자료와 수요측면의 기종점 통행행렬 및 개별 통행행태 자료가 있는데, 강의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일반론은 물론 구축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교육한다. 비용추정은 기술적 검토와 수량산출이 핵심이다. 기술적 검토에서는 교통계획 대안에 대한 설계속도 설정, 평면 및 종단선형 계획 등 교통공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수량산출을 진행하고, 산출된 수량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이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거해 비용으로 환산된다. 교통수요분석은 전통적인 4단계 모형, 즉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각 단계에 적용되는 모형 및 방법론에 대한 장수는 교수의 강의와 교통수요분석 패키지(Emme/3, TransCAD, CUBE 등) 활용에 대한 수업조교의 설명이 병행된다. 수강생은 각 단계의 이론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 이어서 편익산정이 이루어지는데, 교통계획의 편익은 효율성 지표인 통행시간과 차량운행비용, 사회적 지표인 교통사고, 환경성 지표인 대기오염과 소음으로 측정된다. 편익산정이 완료되면 앞서 추정된 비용과 비교하는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다. 경제성 분석은 편익비용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등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경제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수강생은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을 총괄하여 종합결론을 제시한다.

실습교육은 사례조사(Case Study)를 기반으로 진행하는데, 핵심 내용은 교통계획 과정에 따른 교통시스템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2012년 1학기 실습사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간선 철도망의 구축이었다. 먼저, 효율적인 실습 진행을 위하여 수강생들을 4개조로 편성하였다. 각 조는 교통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초자료는 네트워크, 기종점 통행행렬 등 국가교통 DB 자료는 물론 주변지역 교통량 등 교통현황자료, 기상, 지질, 표고 등 자연환경자료, 인구, 산업구조, 토지이용현황 등 사회경제적 자료를 포함하였다. 이어서 각 조는 수집된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상위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현 운행선 활용안, GTX 연계안, 민자철도 연계안, 서울 우회안 등 조별 교통계획 대안을 도출하였다. 개별 대안에 대한 기술검토에서는 속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호 시스템 분석과 기존 선로 접합에 따른 배선계획이 집중 논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하였다. 교통수요분석은 4단계 모형이 적용되었는데, 특히 모형의 추정 못지않게 검정이 강조되었다. 교통수요추정 결과로부터 편익을 산정하고, 이를 비용과 비교하는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4개 대안 모두 경제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조는 지역균형발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등의 정책적 고려요소를 거론하며 계획의 전향적 추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교통계획실습”에서는 표준적 교통계획 과정을 학습·실습한다. 이를 통해 교통계획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전문성의 토대를 확립하게 된다. 다만 학교 여건상 전문 실습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실습 기자재마저 부족해 교통계획 대안 도출과 기술검토 작업이 도상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장수는 교수는 학교 측에 교육환경 개선을 꾸준히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여건이 현재보다 나아진다면 보다 내실 있는 강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동정

신임교수 부임

이석정 교수는 2012년 9월 1일자로 환경계획과에 신임 부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 교수는 한양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친 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대학 (University of Stuttgart) 건축·도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은 도시설계에 관한 연구로서, 도시설계를 이론 및 실무 그리고 사회적 과제라는 차원에서 다루었다. 이 교수는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건축·도시학부의 조교수를 역임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서울의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재직하면서, 독일대학과 한국대학의 교류를 활발하게 도모해왔고, 매년 여름방학 동안에는 슈투트가르트 대학교에서 하계 도시설계학교를 열어 한국,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지역 학생들에게 유럽 도시설계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독일의 실무 건축 및 도시설계가 이기도 한 이 교수는 지난 30년에 걸쳐 독일 슈투트가르트 및 중국 베이징의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유럽 및 아시아의 건축과 도시설계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이석정 교수의 연구분야는 생태적이며 지속적인 도시설계로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건축을 '양극을 이루는 힘'들의 균형 속에서 찾고자 한다. 보존과 개발, 고밀과 저밀, 도시화 영역과 비도시화 영역, 고층과 저층,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 규제와 자유 등 모든 차원에서 힘의 균형에 주목한다. 이 교수는 도시를 무엇보다 삼차원적인 '체험공간'으로 다루고자 하며, 설계를 통하여 계획의 지표를 다양한 공간으로 표현함으로써, 도시를 정성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며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한다. 이석정 교수는 환경계획학과,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 협동과정에서 도시설계세미나와 함께 도시설계스튜디오를 열어서, 도시계획과 설계, 건축과 도시, 도시와 조경의 경계영역을 총체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석정 교수의 부임으로 유럽 도시계획 및 설계에 대한 비교 연구와 독일과의 학술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수상

윤순진 교수는 지난 4월 26일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센터에서 수여하는 2012년 동문공로상(Alumni Achievement Award)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상당한 성취를 이룬 "자랑스런 동문(distinguished alumni)"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윤순진 교수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대중이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뛰어난 노력을 해왔다"는 이유로 이 상을 받게 되었다. 수상식과 함께 열린 에너지환경정책 콜로키움(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Colloquium)에서 "한국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현실(Ideological basis and reality of green growth in Korea)"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다음날 열린 2012년 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센터 학생 컨퍼런스(2012 University of Delaware Center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Student Conference)에 기조연설자(keynote speaker)로 초청받아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 비교 분석(A Comparative Analysis on South Korean Newspaper Coverage on Climate Change)"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정전 명예교수는 올해 초 발간된 『시장은 정의로운가』로 정진기언론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경제·경영도서대상을 받았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정진기언론문화상은 고(故) 정진기 매일경제신문사 창업주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매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과학기술 연구와 경제·경영에 관한 저술로 국민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정전 교수의 『시장은 정의로운가』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시장의 위력과 원리를 정의의 관점에서 풀어내며 시장의 공정성과 사회정의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이 경제·경영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던져야 한다는 정진기언론문화상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올해 정진기언론문화상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대상과 장려상에 각각 삼성전기와 추혜용 ETRI 연구단장이, 경제·경영도서 부문의 장려상에는 김동하 부산외대 교수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7월 12일 서울 필동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김기호 명예교수(환경조경학과)는 오는 10월 서울대학교에서 개최예정인 "Towards a Next Generation of Air Quality Monitoring"이라는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총괄 준비하고 있다. 이 워크숍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Asian Institute for Energy, Environment & Sustainability: AIEES)가 미국 예일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와 함께 국제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EPI는 각 나라의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지수로서 2년마다 세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지수 선정과 가중치, 데이터 정보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AIEES에서는 예일대, 컬럼비아대와 함께 Guiding Stars Project를 통해 이를 개선해 가고자 한다. 그 첫 단계로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기질 및 기후변화에 관한 측정 및 모델링 기법을 주제로 국내외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질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계적인 우수 환경정책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세계의 환경정책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할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미국 Drew Shindel 박사(NASA 연구원)와 May Ajero 박사(미국 Clean Air Initiative program manager) 등 세계 최고의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여 그간의 연구결과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윤순창 교수(서울대 대기과학과), 정희성 박사(전 KEI원장), 홍종호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승묵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및 권원태 박사(기상청) 등이 참여한다. 이번 워크숍은 대기, 기후변화 분야의 측정과 모델링뿐만 아니라 환경정책도 함께 다루는 종합적인 워크숍이 될 것이므로 환경대학원 교수 및 학생, 졸업생들에게는 EPI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크숍은 2012년 10월 4~5일동안 호암교수회관 무궁화실에서 진행된다.

(문의: 한준 연구원 880-2665)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는 대한민국신진조경가대상 설계공모전을 총괄 기획하고 개최운영 중이다. 한국조경설계연구회 주관으로 올해 제 3회를 맞이하는 동 공모전은 한국 조경계 내외의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젊고 유망한 신진 조경가를 발굴, 육성하여 보다 나은 조경설계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07년에 시작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75일간 광주광역시와 한국조경학회가 공동주최하며 광주 중앙공원을 대상으로 재조성계획안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성종상 교수는 부천시의 가칭 오정그린시티 추진협의체 MP단의 총괄MP를 맡아서 분야별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함께 새로운 공원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구 여월정수장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시민이 전문가와 함께 주체적으로 공원 계획, 조성, 운영에 참여하는, 공원 조성의 새로운 모델이자 용도 폐기된 공공시설 재생사업의 시범 모델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건축, 도시, 조경, 시민참여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이번 가을에 1차로 간단한 시민 이용시설을 조성하고 내년 부천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여 공원을 개장할 예정이다. 성교수는 이 프로젝트를 환경조경학과와 스튜디오와 연계시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성종상 교수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이 창립90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Aesthetics of Joseon Garden in Mountain after 16C"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미국 워싱턴 D.C의 American University 캠퍼스에 추진 중인 한국정원의 조성방향 모색을 겸한 심포지엄에는 American University의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학장이자 경제학자인 Joseph Clapper교수, 파리 7대학 한국학교수 Martin Prost 등이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서 추진된 한국정원 조성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3월 14일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된 "정원박람회와 지역사회의 미래"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Garden Expo as Catalyst of City Regeneration"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D-1년 맞이로 개최된 동 국제심포지엄에는 영국의 조경가이자 건축가 Charles Jencks와 일본 오사카 엑스포기념지구 숲재생센터 이케구찌 나오키센터장, 터키 2016 안탈리아정원박람회 운영매니저 안일 일마즈, 그리고 2010 대만국제화훼박람회총제작자 시유탱박사 등이 각자의 경험과 사례를 함께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2008년에 이미 순천국제정원박람회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도한 성교수는 현재도 순천국제정원박람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SSCI 저널인 Asia Europe Journal 제10권 1호(2012년 5월 발간)에 “Nuclear power for climate mitigation? Contesting frames in Korean newspapers”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의 신문들이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보수지와 진보지, 경제지의 시각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매일경제를 대표적인 신문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일간지들은 원자력 발전을 편익과 위험이란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와 매일경제의 경우 “약간 위험하지만 상당히 유익한(slightly risky but significantly beneficial)” 발전방식으로, 한겨레신문의 경우 “얼핏 보기엔 유익하지만 본질적으로 위험한(seemingly beneficial but intrinsically risky)” 발전방식으로 보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논문은 2009년부터 2011년 3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네트워크 연구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성과들 중 하나이다. 또한 윤순진 교수는 6월 25일 독일 뮌헨 뉘른베르크성 안 슈바이스푸르트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핵없는 지구를 위한 한-독 공동 컨퍼런스 (Germany-Korea Conference for the World without Nuclear)”에 참가하여 “한국의 원자력발전 현황과 에너지전환과 탈핵 전망(The Status of Nuclear Power and Prospect for Energy Transition and Post-Nuclear in Korea)”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컨퍼런스는 한국의 탈핵에너지교수모임과 독일 최대 환경단체인 분트(BUND)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는데 이 발표에서 윤순진 교수는 “원자력은 본질적으로 국지적 문제일 수 없기 때문에 탈핵을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유미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2년 8월 22-24일 KOEX와 환경대학원에서 공동 개최된 Pacific Rim Community Design Network Conference 에서 발표자 및 Moderator로 참가하여 “Garden Cities Revived: Design Perspectives on Urban Gardening”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생산적인 도시경관을 주제로 하여 디자인의 관점에서 전원도시의 부활을 예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의 배경과 주요사례를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의 생산적인 도시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2년 9월 5-7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49th IFLA World Congres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에서 ‘Natural Landscape in Transition’ Session의 발표자로 참가하여 “The Changing Coastlines: A Comparative Analysis of Coastal Land Reclamation and Sea Level Rise”라는 제목의 연구주제를 발표하였다. 국내외 해수면상승 취약사례지역의 매립도와 범람도를 비교분석하여 해수면상승에 대한 매립지의 취약성을 증명하고 미래의 연안개발전략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2년 4월부터 법무부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5월부터 한국연구재단 책임전문위원(CRB), 그리고 8월부터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8월에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SF) 집행위원회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전교수는 지난 5월, 한국미래학회 회장직에서 7년만에 물러났다.

조경진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2년 7월 14일에서 17일까지 열린 International Urban Parks Conference에 연사로 참석하였다. 3~4년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이번에는 City Park Alliance와 New York City가 공동주최하여 Greater and Greener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20여 개국 200여개 도시, 900여명이 참가한 이 행사에서 오늘날 도시공원의 현 주소와 미래 방향을 가능하기에 좋은 기회였다. 다양한 전문가 즉 시장, 행정가, 개발컨설턴트, 의료보험전문가, 시민단체 종사자, 건축, 조경, 도시계획가 등이 모여 현대 도시에서 점점 더 중요해 지는 도시공원의 역할과 활용 사례 등 여러 이슈를 논의하였다. 조교수는 The Place to Be: How City Parks are Central to Urban Tourism 세션에서 Urban Park as Destination Place, Seoul City’s Vision and Practices라는 발표를 하였다. 발표에서는 도시 관광의 관점에서 공원의 역할을 논의하고 서울의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최명철 공동주임교수(고위정책과정)는 2012년도 제7회 공간문화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공간문화대상(Good Place Award)은 ‘더 좋은 장소만들기’를 목표로 2006년부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4부문 장관상으로 구성되어 시상하고 있다. 한편 최명철 교수는 지난 2월부터 중앙일보 일요판 중앙SUNDAY에 ‘집을 생각한다’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에서 강의중인 ‘주거환경계획특론’을 바탕으로 집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약 1년간 격주로 총 25회 정도가 게재될 예정이다.

교수출간



고급통계분석론

환경계획학과 **이희연** 교수는 2012년 5월에 박사과정 수료생인 노승철과 공저로 『**고급통계분석론**』을 출간하였다. 최근에 들어와 센서스나 패널 데이터와 같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구축해놓은 데이터로부터 고부가가치의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통계분석 방법을 통한 전문적 지식에 대한 욕구는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복잡한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전산 환경에서 분석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고부가가치의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통계를 활용한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통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통계분석 방법의 부적절한 이용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희연 교수는 학부, 대학원생 및 연구전문가들이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적절한 통계분석 방법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특히 기초통계가 아닌 고급통계의 경우 통계이론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세계의 데이터를 투입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소상하게 알려주기 위해 고급통계분석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소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통계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독자들도 기초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 2장부터 제 5장까지는 기술통계, 확률이론, 추정과 가설 검정, 모수와 비모수 검정에 관해 이해하기 쉽게 다루었다. 또한 제 6장부터 제 8장까지는 고급통계분석 방법들을 이해하는 데 선수 학습해야 하는 분산분석, 상관분석, 단순 회귀분석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제 9장에서는 고급통계분석의 근간이 되는 다중 회귀분석방법들을 다루었다. 제 10장에서는 종속변수가 명목변수인 로지스틱 회귀모델의 원리와 활용에 대해 소개하였고, 제 11장에서는 위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위계선형모델에 대한 개념과 이론 및 활용사례들을 다루었다. 제 12장에서는 횡단면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패널모델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제 13장에서는 종속변수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가지는 경우에 사용하는 공간계량경제모델, 특히 공간회귀모델의 개념과 원리 및 활용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제 14장에서는 인자분석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다루었다. 마지막 제 15장에서는 확인적 인자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인과관계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델에 대한 이론과 원리 및 실행과정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 책에서는 각 장에서 학습한 통계분석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각 단원마다 실습을 통해 데이터를 직접 조작하고 결과물을 산출하여 이를 해석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우리나라 도시 및 지역 데이터를 사례로 하여 사전에 특정 통계프로그램을 다루어 본 경험이 부족한 독자들도 누구나 실습내용을 따라서 학습하면 충분히 다양한 통계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는 통계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PSS 외에도 HLM, STATA, GeoDa, AMOS이다.

(고급통계분석론/ 이희연, 노승철 지음/ 법문사/ 2012/ 828쪽)



정원을 말한다. 인간의 조건에 대한 탐구

환경조경학과의 조경진 교수는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의 황주영, 김정은과 함께 로버트 해리슨이 저술한 Gardens :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을 『정원을 말한다: 인간조건에 대한 탐구』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하였다. 이 책은 왜 인류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정원을 가꾸어야 하는지를 문명사적 입장에서 탐구했으며, 정원을 통한 서구 문명과 인간의 조건을 성찰한 명저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을 번역출간한 출판사(나무도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포그 해리슨은 『정원을 말한다』에서 정원이 인간의 조건에 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방식에 대해 사려 깊고 폭넓은 탐구를 이어나간다. 고대 철학자의 정원에서부터 현대 뉴욕의 집 없는 이들의 정원으로 나아가며 저자는 어떻게 정원이 역사의 파괴와 손실을 저지해왔는지를 보여준다. 해리슨은 고대인들이 마음의 평정과 깨우침에 필수적인 자기함양과 자기발전의 모델이자 장소로 정원을 보았고, 이러한 인식은 이후로도 수 세기 동안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또한 저자는 성경과 코란, 플라톤의 아카데미와 에피쿠로스의 정원학파, 일본의 선(禪) 정원과 이슬람교의 카펫 정원, 보카치오, 카렐 차페크, 이탈리아 칼비노, 미셸 투르니에, 한나 아렌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서양 고전과 근현대문학, 철학자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정원의 개념과 실재가 유한성과 질서, 힘에 대한 인간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볼테르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원을 가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그 의무의 본질을,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인류에게 중요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정원을 말한다: 인간의 조건에 대한 탐구/ 로버트 포그 해리슨 지음/ 조경진, 황주영, 김정은 옮김/ 나무도시/ 2012/ 304쪽)



철새협동조합: 철원 철새마을 커뮤니티 디자인

환경조경학과의 조경진 교수는 철원군 양지리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진행한 ‘철새마을 커뮤니티 디자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12명의 참여자와 함께 공저로 하여 “철새협동조합: 철원 철새마을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였다. 조경진 교수가 총괄계획가로 수행한 철원 프로젝트는 2009년부터 국토해양부가 시작한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철새를 주제로 한 접경지역 농촌 문화기반시설 조성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이 프로젝트는 조경분야의 주도로 건축, 커뮤니티계획, 프로그래밍, 철새 및 생태계획, 지역 브랜딩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계획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 철원군청, 국토해양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이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총괄계획가로서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부터 2년 동안의 진행과정을 주도한 조경진 교수는 이 프로젝트를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설계”와 “주민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설계”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적 과정에 대한 실천적 경험사례를 커뮤니티 계획가들에게 전파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논의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책 발간의 취지라고 한다. 이 책은 ‘사이트 스토리’와 ‘커뮤니티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상지의 역사, 자연, 생태, 인문환경을 소개하면서, 철새를 주제로 한 교육, 관광, 자연보전, 지역발전에 대한 건축, 조경, 생태·환경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주민과 지역사회, 전문가와 행정관청의 참여와 협력과정이 상세하고 생생하게 수록되어 있다.

(철새협동조합: 철원 철새마을 커뮤니티 디자인/ 조경진, 김아연, 강봉이 외 10인 지음/ 나무도시/ 2012/ 229쪽)



용산, 커뮤니티를 만나다

환경조경학과와 조경진 교수는 석사과정 “커뮤니티 계획과 설계” 수업의 결과물을 담아 『**용산, 커뮤니티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책을 발매품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용산지역의 해방촌, 청파동, 삼각지, 이태원,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팀작업을 사진, 글, 그래픽을 매개로 아이디어의 부각과 소통에 효과적인 편집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수업을 담당한 조경진 교수와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은 서문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용산공원 조성이라는 큰 변화를 앞둔 용산지역의 오래된 동네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나갈 수 있을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소통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동네가 지닌 잠재적 자원을 찾아내서 어떻게 건강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 스튜디오의 주제였다고 한다. 학생들은 각기 맡은 동네의 성격에 따라 마을잡지 만들기, 빈집활용하기, 장소의 정체성 찾기, 커뮤니티 관계망 찾기를 통해 수업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데, 소통과 역량강화, 사람과 일상생활의 존중, 지역자산의 발굴 및 활용, 장소 정체성의 유지, 지역문화와 구성원의 이해 등 커뮤니티 차원의 섬세하고 창의적인 계획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업을 수행한 학생들은 조민정, 배영욱, 김은성, 박규영, 민윤경, 이선미, 이제이, 박양우, 노수동, 김지아, 김희수이며, 이 책의 공저자 들이다.

(김민오, 조경진, 김연금 외 9인 지음/ 용산, 커뮤니티를 만나다/ 지역활성화센터/ 2012/ 226쪽)



인문학자, 과학기술을 탐하다

환경계획학과 전상인 교수는 『**인문학자, 과학기술을 탐하다-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공동저술에 참여하여 “보이지 않는 도시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글에서 도시 혹은 도시계획 연구가 공학중심의 물리적 접근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문사회과학 분야와의 적극적인 융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종의 ‘계획강박증’과 ‘공학패권주의’가 작동해왔으며 개별 도시의 역사성이나 장소성 대신 도시의 기능적 편의와 시각적 질서가 강조되어 결과적으로 유사한 공산품 도시가 남발되어 왔다고 말한다. 문화의 그릇으로서 인류문명의 원동력으로 작동해 왔던 도시 본연의 잠재적 가치는 삶의 다양한 기억과 체험, 일상의 숨결과 체취, 시간의 두께와 토착적 지혜, 장소의 혼(Genius Loci) 과 같은 보이지 않는 실체가 무시되거나 외면되지 않을 때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도시연구나 도시계획에 있어서 인문학적 통찰이나 사회과학적 상상력의 입지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인문학자, 과학기술을 탐하다/ 박이문, 복거일, 존 버로스, 임정택, 석영중 지음/ 고즈원/ 2012/ 316쪽)

석·박사과정

2011학년도 후기 졸업



2011년도 후기 졸업식이 8월 29일(수)에 거행되어, 박사 3명, 석사 30명이 배출되었다(아래 이도원 원장 졸업식사 수록). 환경계획학과의 도시및지역계획전공 6명, 교통관리전공 2명, 환경관리 전공 6명에게는 도시계획학 석사학위가 수여되었으며, 환경조경학과 16명에게는 조경학 석사학위가 수여되었다. 우수논문으로는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고문주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적정 보조금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 환경조경학과 최라윤의 “18-19세기 조선의 식물소재 연출기법 및 완상태도에 관한 연구: 다산 정약용을 중심으로”가 선정되었다. 박사학위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이용각 도시계획학 박사 (도시및지역계획전공) 신규 분양 아파트와 재고 아파트의 가격 차이와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지도교수 최막중)
신영선 공학박사 (협동과정조경학) 농촌마을 주민 공동체의식 연구: 공동체의식 측정항목 도출 및 형성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임승빈)

오영출 공학박사 (협동과정조경학) 북한지역의 기후변화협약 산림 메카니즘 활용 방안 연구 (지도교수 이동근)

이준원 원장 2015학년도 후기 졸업식 식사

졸업생 여러분, 2년 이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마음을 나누었던 여러분들을 보내는 시간이네요.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동창회 부회장 전의찬 세종대학교 대학원장님, 졸업생들의 부모님과 가족들, 교수님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인공들의 영광스러운 시간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식사는 극히 일상적인 곳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아침식사 자리에서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2005학번이니 오늘 석사학위를 받는 주인공들 중에도 같은 또래가 있지요.

“아이패드 터치 펜 파는 데가 어디 있지?” 제가 아이패드를 이용하는데 쓰고 있던 펜을 잃었더랍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에그엘로우 몇 층인가 있는데...” 제가 영어 부분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거기가 어디지?” “서울대입구역, 우리 영화 보려간 데 있잖아.” “그래. 건물 이름을 영어로 쓰니 알아듣고 기억하기가 어렵네. 내가 이런 정도면 시골에 살며 영어를 쓰지 않는 분들이 서울 오면 어떨까?”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요새는 아파트 이름을 다시 우리말로 쓰네요.” “???”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아파트 이름이 영어로 된 세태를 꼬집는 농담 아시지요?

“왜 그렇지?”

“시어머니가 영어 이름의 아파트를 찾지 못해 이제 시누이를 데리고 온대. 그러면 더 힘들어지잖아”

그 때 문득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외래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약간 국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요. “시류에 맞지 않게 우리말 쓰기를 고집하며 영어 쓰기를 줄이니까 순발력이 떨어지네. 늘 지나 다니는 건물인 에그엘로우도 금방 떠올리지 못하다니...” 우리에게 달가운 말은 아니지만 동북공정이라는 말은 들었지요? 아마의 지금 언어 풍토에서는 “동북 프로젝트”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oo연구센터”라는 말은 중국에 없습니다. 그들은 “oo연구중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중국의 태도 안에 그들의 문화적 자긍심이 있다고 봅니다. 제 전공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래어에 대한 태도는 세 문화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일 것이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영어보다 한국말을 쓰고 갈고 닦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일상에서 영어 쓰기 풍토에 반발하다 보니 거의 매일 보는 건물이름인 에그엘로우도 금방 떠올리지 못했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사항은 이야기의 새로움에 대한 적응 문제입니다. 환경대학원에서 종이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논문심사를 포함하는 서류 검토에 아이패드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지요? 그런데 저는 나이 60이 넘으면서 새로운 기기의 기능을 익히는 일이 간단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사용방법을 익히는 데 아들에게 많이 의지합니다. 문득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어려운 노년을 보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에서 자라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겪은 변화도 만만치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 앞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과 개념, 기술이 장차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요. 이 자리에는 외국인 남편 또는 예비 남편이 동행한 제 연구실 학생 두 명이 있습니다. 이미 졸업하여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남편과 회사를 운영하는 졸업생도 있구요. 그만큼 우리가 격벽의 외부세계로 활짝 열려 20세기에는 예상하지 않았던 수많은 변화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50~100년 세월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두 가지 모두 그에 대한 고민의 정도와 해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각각 현재와 미래의 태도와 삶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 저는 아직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하게 행복하기 위해선 예기치 못한 일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조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적인 내용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극히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한국인 어머니들과 유대인 어머니들이 교육열이 높은 것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꽤 다른 부분이 있다는군요. 예를 들면 한국 어머니들은 자녀가 학교에 다녀오면 대체로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무엇을 배웠니?"하고 묻지요. 저는 이런 질문이 자녀와 소통하는 과정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 어머니들은 성격이 좀 다른 질문을 한다는군요. 뭘까요? 그들은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하고 묻는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 학위논문을 제출했습니다. 학위논문의 출발은 자신의 문제의식으로 시작했지요?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여기까지 오는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압축해보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능력 갖추기인 셈이지요. 그 능력을 믿고 학위증을 수여하며 여러분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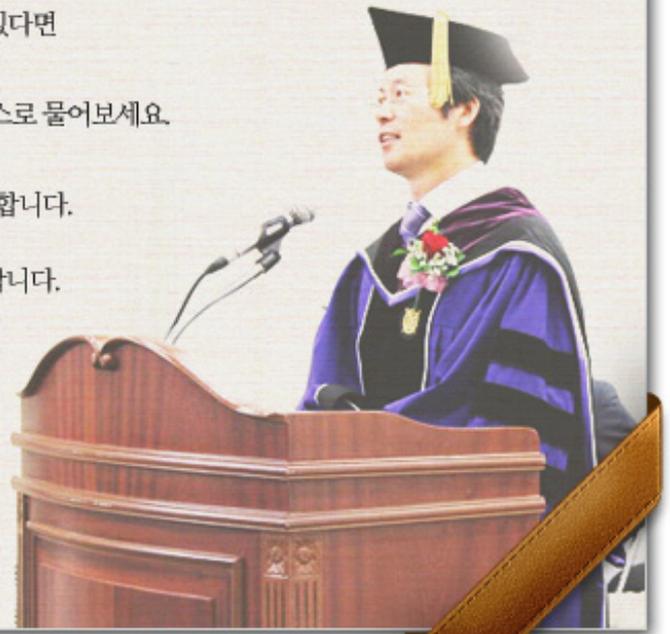
여러분, "환경대학원에서 뭘 배웠지?" 라고 여전히 질문하고 있다면 사실은 아직 학위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제 환경대학원을 다니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질문했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미래에 만날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속 세대에게도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가 아니라 뭘 질문했는지 물어주길 당부합니다.

여러분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길 빌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이도원** 올림



2012학년도 후기 입학

높은 경쟁률을 보인 2012학년도 후기 입시의 합격자 발표(6월 29일)에서 박사과정 10명, 석사과정 43명에게 합격이 통보되었다. 환경계획학과의 경우 박사과정 6명(도시및지역계획 전공 2명, 교통관리 전공 1명, 환경관리 전공 3명), 석사과정 25명(도시및지역계획 전공 14명, 교통관리 전공 3명, 환경관리 전공 8명)이 합격하였다.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에는 총 12명이 합격하였으며,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에는 4명이 합격하였다.



환경계획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환경계획학과는 7월 19일(목)~20(금) 1박 2일의 일정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여수엑스포 답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학과교수 및 조교, 신입생, 재학생 총 86명이 참여하였다. 첫날은 2012 여수 세계 박람회를 참관하였다. 이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100여 개국이 참가하여 각 나라의 해양산업에 대한 비전과 미래를 전시하였다. 이중 바다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통해 인류와 바다가 상생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주제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를 체험하는 기후환경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시관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시간에는 김광중 교수(환경계획학과장)의 신입생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환경계획학과 교수소개와 신입생, 재학생들의 소개 및 장기자랑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전라남도의 선암사, 낙안읍성민속마을을 답사하였으며, 순천시 문화관광해설사의 도움으로 상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었다. 낙안읍성은 대표적인 조선시대 읍성으로서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이번 답사로 인해 재학생과 신입생들 간의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환경조경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환경조경학과는 8월 20일(월) 2012학년도 후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오후 행사로는 학과소개와 수강신청 후 학과장님 면담 순서로 진행되었다. 저녁친교 시간에는 학과교수 및 조교, 신입생, 재학생 총 40명이 참여하였다. 조경진 교수(환경조경학과장)의 교수소개를 시작으로 신입생들이 사전에 만나 답사를 한 결과물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조별로 발표하였다. 이 동영상 발표는 도시관광형 공원(Urban Park as Destination Place)을 주제로 하였다. 사전에 3명이 한조가 되어 서울의 도시관광형 공원을 방문하여 공간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4~5 분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각 조별 동영상에는 서서울공원, 남산, 노을공원, 하늘공원, 선유도공원, 홍대 등을 조별로 다양하게 소개하였다. 신입생 동영상 발표 후 학과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2012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

8월29일 졸업식에서 재학생에 대한 2012년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환경대학원에는 크게 발전기금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고위과정 동창회 장학금, 교통동문 장학금, 환경관리동문 장학금 등 총 다섯 종류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외부인사가 장학금으로 기탁한 발전기금에 의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 **미라보 장학금**, **청송 장학금**, **구재서 장학금**이 있다. 이번 2학기에는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서 세계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다 작고하신 임길진 교수님을 기리며 유가족께서 기탁하신 장학금으로 2012년 2학기에는 환경계획학과 **한진이**(박사 4학기)학생과 환경조경학과 **이현미**(석사 4학기)학생에게 수여되었다.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총동창회에서 전공별 석사과정 재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4명의 학생에게 매학기 수여되는 장학금으로서, 환경계획학과 **윤정미**(석사 4학기), **이상현**(석사 4학기), **김재경**(석사 4학기), 환경조경학과 **박계정**(석사 2학기) 학생이 선정되었다.

환경대학원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서 전달하는 **고위과정 동창회 장학금** 역시, 환경계획학과 **김찬미**(석사2학기), **김대진**(석사4학기), 환경조경학과 **김은성**(석사 4학기)학생에게 전달되었다.

교통동문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교통동문회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교통관리 전공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교통전공 **이진걸**(석사2학기)학생에게 수여되었다.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은 석박사과정생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 학술발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를 기준으로 수여자를 선정하였는데, 환경관리전공 **전수현**(석사 4학기), **이경민**(석사 3학기)학생에게 수여되었다.

체육대회



2012년 환경대학원 어울림 체육대회

'2012 환경대학원 어울림 체육대회'가 5월 9일 학생회 주관으로 관악사(서울대학교 기숙사) 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환경대학원 구성원들 간의 교류와 친목을 다지기 위한 행사로, 이날 환경계획 및 설계 수업 수강생과 각 전공별 재학생, 교수님, 교직원들을 포함하여 약 150여 명이 함께하였다. 축구, 여자피구, 닭싸움, 단체줄넘기, 2인3각, 팔씨름, 단체줄다리기, 릴레이계주 총 8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고, 환경조경학과가 종합우승, 환경관리전공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남학생 MVP는 축구와 릴레이계주에서 활약한 환경관리전공의 문선용 석사과정생이, 여학생 MVP는 닭싸움과 여자피구에서 활약한 교통관리전공의 김재경 석사과정생이 수상하였다. 체육대회를 마무리하고 낙성대 마포소금구이로 자리를 옮겨 다 같이 식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끼 있는 학생들과 여러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숨겨왔던 노래실력과 장기를 발휘하여 분위기를 밝혔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는 환경대학원 교직원분들께서도 다 같이 행사에 참여하시어, 모두가 함께 어울리자는 행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었다. 이번 어울림 체육대회는 환경대학원 타 전공 학생들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면서 강의실에서만 뵈던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



교통관리 전공 2012 홈커밍데이

지난 5월 12일 토요일, 교통관리전공에서는 여러 동문들과 재학생간의 교류와 친목의 시간을 갖기 위해 '2012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성수 교수, 이영인 교수, 장수은 교수를 포함한 교통전공 동문과 재학생 등 총 70명이 참석하였다. 1부 체육대회에서는 재학생팀과 졸업생팀으로 나누어 피구, 단체줄넘기, 2인3각 달리기, 축구, 이어달리기 등의 경기를 진행하였다. 이어 낙성대로 자리를 옮겨 친교의 저녁식사 시간과 스승의 날 행사를 가졌다.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제 28기 도시환경최고위과정 수료식



지난 3월 31일 토요일,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제28기 도시환경최고위과정의 수료식이 있었다. 2011년 10월 13일 출범하여 6개월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참가한 29명의 Fellow중 27명이 수료를 하였다. 이번 과정에서는 총 19회에 걸쳐 국토·지역계획, 도시계획·설계, 건축, 조경, 부동산·도시개발·건설, 교통, 환경, 생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환경분야의 현안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7회의 Fellow발표 시간을 통해 각 분야에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당면과제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시아의 복합문화, 레저 허브를 놓고 경쟁하는 두 도시, 마카오와 싱가포르 비교'라는 주제로 진행된 해외시찰이 있었고, 국내시찰에서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영흥화력발전소 풍력상용화단지,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MTV 사업'을 살펴보았다.

28기 과정을 수료한 27명의 Fellow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남윤**(인천광역시 문화재과장), **김범상**(한양이엔지 전무), **김영만**(마미손 종합건축 대표이사), **김재웅**(하나조경개발 대표), **김진후**(화인에프에스 대표이사), **남정현**(천산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박규은**(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장), **박봉규**(삼우건축 상무), **박준식**(에평 E&C 대표), **백승기**(송보이엔씨 대표이사), **손희목**(관악구청 도시계획과장), **안기웅**(현대산업개발 상무), **안성은**(KT기업고객부문 과장), **유동준**(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팀장), **유철종**(해밀씨엠 대표소장), **유태식**(지지원 대표이사), **윤태권**(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강용**(경남도시환경디자인 대표), **이상포**(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이상훈**(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장), **장기숙**(한솔비드 전무), **정광희**(우림웍스 대표이사), **정철수**(건축사사무소 한터 대표이사), **조동철**(경기도시공사 팀장), **조영규**(경호엔지니어링 부사장), **최임락**(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한선아**(서인조경 대표이사)

동문소식

7

동창회

SGS동창회 후원 '밤과 낮 쓸쓸한 동화' 행사 개최

지난 6월 9일(토)부터 17일(일)까지 정동의 '어반가든'에서 환경대학원과 도시환경최고위과정(SGS) 동창회가 후원하여, 28기 Fellow중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란 이름으로 뜻을 모은 펠로우들이 "쓸쓸한 동화" 행사를 개최하였다. 6월 9일 오후 5시에 Opening Ceremony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상훈 준비위원장(28기,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SGS 동창회원의 재능나눔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회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발전기금을 마련하려는 여러 목적으로 기획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이강용 화백(28기)의 작품 17점과 현진오 박사의 우리 꽃 사진 18점이 전시되었으며, 행사가 좀 더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시간이 되도록, 행사기간 중 저녁시간(6시 30분 ~ 8시 50분)에는 작가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재능나눔 문화아카데미도 마련되었다.



'쓸쓸한 동화' 주제작품
〈쓸쓸한 동화〉 81.5x50, 혼합재료, 2012작

재능나눔 문화 아카데미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10일(일) **마음풍경: 비가시성의 미학** (성종상 환경대학원 부원장)
- 11일(월) **생태학: 자연에서 일상으로** (이도원 환경대학원 원장)
- 12일(화) **두꺼비는 내 헌 집을 어떻게 했을까?** (김경민 교수)
- 13일(수) **다큐멘터리 사진의 현실** (조문호 사진작가)
- 14일(목) **도시재생** (이상훈 준비위원장)
- 15일(금) **세계 여행 이야기** (최막중 교수)
- 16일(토) **도시·시각·계획** (전상인 교수)

SGS동창회 '정창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초청강연



5월 21일 월요일, 환경대학원 도시·환경최고위과정(SGS) 동창회는 정창영 사장을 모시고 '고객, 환경, 미래와 소통하는 철도'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에서 정사장은 고객을 중심으로 한 철도교통의 변화와 기후변화 시대에 필요한 녹색교통으로서의 철도교통의 가치 등을 강조하였으며, 변화의 과정에 도시환경 전문가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최고위과정의 운영구조 개편에 맞춰, SGS동창회가 삼수회, 도시환경포럼 등 각 세부프로그램에서 진행해오던 학술모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창회 등반대회

환경대학원 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창회는 등산동호회 주관으로 4월 28일 토요일에 청계산 원터골을 출발하여 진달래능선을 따라 봄 산행을 다녀왔다. 이날 조백일 최고위과정 동창회장 및 고병준 등산동호회회장, 이영성 주임교수를 비롯하여 총 18명이 참석하였다. 약 두 시간에 걸친 산행을 끝내고 청계산 인근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활발한 등산동아리 활동을 위한 건배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SGS동창회 2012년 하반기 이사회

지난 9월 4일 화요일, 서울팔래스호텔 2층 다봉홀에서 'SGS동창회 2012년 하반기 이사회'가 있었다. 조백일(6기) 동창회장을 비롯한 18명의 동창회 임원과 이도원 원장, 최막중 교수, 이영성 교수가 참석했으며, 전반기 주요행사에 대한 경과보고 및 하반기 계획이 논의되었다.

SGS 동창회의 하반기 주요 행사계획은 다음과 같다.

- 등반대회 개최: 10월 21일(일)
- 골프대회 개최: 11월 14일(수)
- 송년모임 및 총회: 12월 5일 또는 6일
- *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은 별도 안내 예정

석·박사 과정 동문 동정

환경계획학과

- **김윤상**(계획 4회) 경북대 법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난 5월 경북대 개교 66주년 기념식에서 원암학술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받은 상금 1천만 원을 오송강학회에 기탁하였다.
- **김윤상**(계획 4회) 경북대 법대 행정학부 교수, **조성찬**(계획 34회)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반영운 교수(충북대학교) 외와 함께 올해 초 공저한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2012년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 **김태보**(계획 9회)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4월 1일부로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임기 2014년 3월 31일까지)에 취임하여 현재 사립대학 및 사립 중·고교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 **이민부**(계획 11회)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4월 1일자로 2년간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장(인문사회대)을 맡았고, 5월에 교양서 『이민부의 세상을 담은 지리교실』을 출간하였다.
- **변영진**(계획 12회) 인토엔지니어링 회장은 지난 2월 서울시 지정 공공건축가(총괄계획분야)로 피촉되었다.
- **허일도**(계획 13회) 동문은 6월 11일자로 ㈜정림이앤씨 건축사사무소(부산소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 **김선희**(계획 15회)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의찬**(계획 18회)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정해봉**(도시환경최고위과정 17기) 에코프론티어 대표이사 외 22인은 『기후변화, 25인의 전문가가 답하다』를 출간하고 3월 8일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 **박인성**(조경 16회) 중국 항저우 소재 절강대학교 토지관리학과 교수와 **조성찬**(계획 34회)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의 공저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 한울 2011』은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사회과학분야 77번)로 선정되었다.
- **전병성**(계획 16회) 전 기상청장은 지난해 기상청장을 퇴직하고 올 6월부터 경북대학교 초빙교수로 부임하였다.
- **정종관**(계획 17회)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환경영향평가 학회장으로서 2012. 05. 27 ~ 06. 02까지 포르투갈 포르토에서 열린 국제영향평가학회(IAIA)의 아시안 세션과 회원국가 포럼의 좌장 및 발표를 병행하였다.
- **조덕호**(계획 17회)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장 및 한국정부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 **강창민**(계획 18회) 전 초당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지난 8월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환경독성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 **김학성**(계획 18회) 동문은 제약공장 건설 전문회사인 보광이앤씨(주) 부사장으로 전직하였다.
- **최동일**(계획 18회) 동문은 5월 17일자로 인천도시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통합) 주택설계처장으로 취임하였다.
- **김명수**(계획 19회)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월부터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 **임홍탁**(계획 22회) 동문은 지난 3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과학과 연구교수로 부임하였다.
- **박 인**(계획 23회) 동문은 지난 3월 1일자로 LG화학 환경기후변화대응팀 부장에서 환경기후변화대응담당 전문위원(상무급)으로 승진하였다.
- **문석만**(계획 27회) 동문은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정상화부 정리관리팀에서 보험정책부로 인사이동 하였다.
- **박지형**(계획 28회) 교수는 강원대학교에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 **서현교**(계획 29회, 계획박사 16회)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선임기술원은 2012년 7월 4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출범 기념식에서 'KIOST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 **신동호**(계획 29회) 동문은 지난 5월부터 기업의 보도자료를 언론과 포털에 배포하는 보도자료 통신사 코리아뉴스와이어 대표이사를 맡았다.
- **오세리**(계획 29회) 미국 Villanova 대학교 토목 환경공학부 교수는 정교수가 되었다.
- **윤진수**(계획 29회) 수의사는 강원도청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신규임용 되었다.
- **김형태**(계획 30회) 동문은 지난 2월 15일자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장으로 인사이동 하였다.
- **노혁재**(계획 30회) 동문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며 Saskatchewan Ministry of Highways and Infrastructure에서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reservation Planner로 근무하고 있다.
- **김경욱**(계획 31회) 동문은 지난 8월 국방부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공무원 인사계장으로 보임을 받았다.
- **김성욱**(계획 33회, 계획박사 23회) 동문은 9월 3일 가천대학교에서 우수강의강사상을 수상하였다.
- **박소연**(계획 34회, 계획박사 21회) 동문은 지난 8월 20일부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게 되어 개도국의 녹색성장 관련 계획 지원의 일환으로서 베트남 도시에 대한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 **음성원**(계획 34회) 동문은 문화일보에서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로 인사이동 하였다.
- **이태동**(계획 34회) 홍콩 시립대학교 교수는 두 번의 국제 학술 대회(① Low Carbon and Eco Cities in East Asia, 6월 7~8일 / ② Climate Policies: A Guide for Local Government, 6월 27~28일)를 홍콩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Dr. van de Meene과 함께 "Who Teaches and Who Learns?: Policy Learning through the C40 Cities Climate Network" 논문을 SSCI 저널인 Policy Sciences, 45 (3)에 게재하였고, Dr. Koski, Chris와 함께 "Building Green: Local Political Leadership Addressing Climate Change" 논문을 SSCI 저널인 Review of Policy Research, 29 (5)에 게재하였다.
- **변수영**(계획 35회) 동문은 코레일네트웍스(주) 기획인사처 사업기획파트 과장으로 근무처가 변경되었다.
- **차민태**(계획 38회) 동문은 6월 1일자로 (재)서울문화재단에서 한국문화예술문화위원회로 전직하였다.
- **박경욱**(계획 40회)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전략연구본부 기후변화대응센터 연구원은 동원 국가교통미래전략본부 기후변화대응연구실 전문연구원으로 인사이동 하였다.
- **조현민**(계획 42회) 동문은 올 1월에 행정공제회 사업개발팀에 입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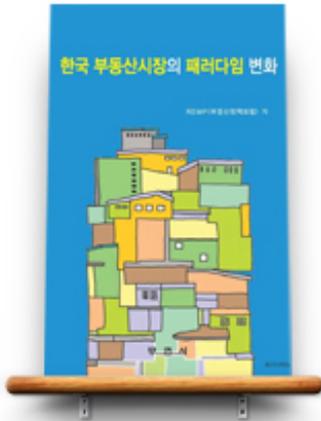
환경조경학과

- **안동만**(조경 1회) 서울대 농생대 조경학과 교수는 서울대학교가 금년부터 시행하는 "Global Scholarship" 홍보와 장학생 유치 활동을 위해 2012년 6월 25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 베트남임업대학교 조경학과를 방문하였다. 서울대 조경학과, 한국의 조경 발전과 조경 작품에 대해 특강하고, 세계조경가연합회 (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 회원 가입과 활동에 대해 소개하였다.
- **계기석**(조경 7회) 동문은 2011년 9월부터 파리 제4대학(소르본느대학)과 국립고등사회과학원(EHESS)의 초빙연구원 자격으로 파리에 체류하다가 최근에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복귀하였다.
- **김영대**(조경 8회) 동문은 지난 8월 5일자로 만 4년간의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직 임기를 마치고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복직하였다.
- **박원규**(조경 11회)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지난 3월 "조경적산학" 저서로 한국조경학회 정기총회에서 우수저술상을 수상하였다.
- **구태익**(조경 17회) 천안연암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는 2012년 3월 기획처장으로 발령받았다.
- **신인환**(조경 17회) 동문은 지난 5월부터 ㈜삼안 관광조경부 전무이사로 전직하였다.
- **김민근**(조경 18회) 롯데자산개발(주) 상무는 제주도에 고급 콘도미니엄인 롯데 아트빌라스(Artvillas)를 올 3월에 개장하였다. 사업주는 롯데제ური조트(주)이며, 롯데자산개발(주)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였다. 프랑스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로 등 세계적인 건축가 5인이 설계하여 새로운 형태의 관광숙박단지의 기록을 만들고 있다. 아트빌라스는 주택처럼 소유할 수도 있고 혹은 호텔처럼 몇 일간만 이용할 수도 있는 다양한 시스템으로 롯데호텔이 운영하고 있다.
- **박두준**(조경 18회) (사)아이들과미래 상임이사는 지난 5월 22일부로 사무총장에서 상임이사로 이사회에서 승인받았다.
- **이관규**(조경 26회) 강원대학교 조경학과 학과장은 2012년 생물다양성의 날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 **장우영**(조경 32회) 동문은 8월 21일부로 LG Group에서 SK C&C Global HR팀으로 전직하였다.
- **김형진**(조경 33회) 동문은 올 6월부터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교(Kansas State University) 조경 및 커뮤니티/지역계획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 **김한상**(조경 34회) ㈜유일엔시스 필리핀 법인장은 필리핀 에너지국으로부터 4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한 인허가를 마치고 2013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고위정책과정 동문동정

- **서사현**(도시환경최고위과정 7기) 동문은 작년 9월부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고문으로 봉직하고 있다.
- **이재희**(도시환경최고위과정 7기) 동문은 한국화이바 그룹 신임 부회장으로 영입되었다.
- **김희원**(도시환경최고위과정 10기) 동문은 ㈜한화건설 주택영업본부장 전무로 승진하였다.
- **박은경**(도시환경최고위과정 11기) 한국물포럼 총재는 5월 25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61차 정기총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장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실질적인 대표는 부위원장이 담당한다고 한다.
- **정보순**(도시환경최고위과정 14기) 동문은 2006년 7월 31일에 ㈜대창기업 상무이사로 퇴직하였다.
- **박상훈**(도시환경최고위과정 16기) 소장은 ㈜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로 전직하였다.
- **김창권**(CEO지속가능경영포럼 17기) 한국 조명 재활용 협회장은 생활계유해폐기물의 적정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로 2012년 8월 23일 서울 상명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환경 경제학 전공)학위를 취득하였다.
- **이경민**(도시환경최고위과정 19기) 미성 대표이사는 7월 7일 오후 6시 청담동 MAISON CLASSIC에서 고희 검 수필 출판기념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 **마승희**(도시환경최고위과정 19기) 그린컨셉 대표는 한국조경사회 정위원장으로 지낸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12 첼시 원예박람회'에 "도시 속의 숲"이라는 작품을 출품하였다. 첼시원예박람회는 영국 왕실의 공식 행사로 올해 185주년이 된다.
- **박영기**(도시환경최고위과정 19기) 동문은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 **신지용**(도시환경최고위과정 20기) 동문과 고정림(도시환경최고위과정 24기) 동문이 소속된 ㈜ENA 테크놀로지는 지난 4월 27일에 'One Stop Green Building Design Service'를 제공하고자 ㈜ENA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기술(Technology)과 설계(Design)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박정수**(도시환경최고위과정 22기) 국토해양부 과장은 현재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도시재생에 관련하여 학업중이며, 8월경에 귀국할 예정이다.
- **신덕순**(도시환경최고위과정 22기) 동문은 19대 새누리당 강남갑 지역구 국회의원 심윤조 의원실 선임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다.
- **이종선**(도시환경최고위과정 23기) ㈜이미지 디자인 컨설팅 대표는 2004년에 출간한 『따뜻한 카리스마』는 스테디셀러로 지난해 개정증보판을 내었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출간 이후 3년만에 지난 5월 15일 『성공이 행복인줄 알았다』를 출간하였다.
- **유종국**(도시환경최고위과정 24기) 솔로몬산업(주) 대표이사는 서울대총동문회이사 및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 **유철중**(도시환경최고위과정 28기) 동문은 ㈜해밀건축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동문출간



한국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백성준(계획 24회, 계획박사 19회) 한성대학교 교수는 2012년 7월 12일 부동산정책포럼 회원들과 공저로 『**한국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출간하였다. 저자인 REMP (Real Estate Market and Policy) 부동산정책포럼은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연구 및 토론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정책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모임으로서, “주택시장의 틀 변화를 각자의 관점으로 다양하게 조명하였다.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최근 논의사항을 세분화하여 퍼즐 식으로 접근하였으며, 매매가격과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최근 전세가격 강제 현상을 통해 예견되고 있는 임대시장 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보문고 책소개, <http://www.kyobobook.co.kr> 인용〉

(한국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REMP 지음/ 부연사/ 2012/ 1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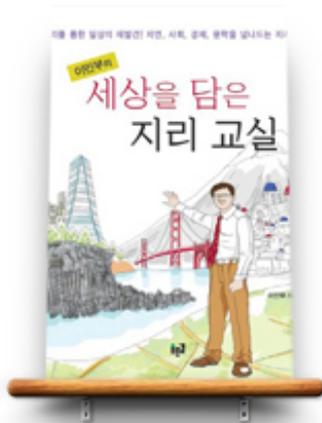


사쿠테이키 일본 정원의 미학

김승윤(협동과정 조경학 박사 13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협력사업본부장은 지난 7월 25일 일본 정원의 미학 『**사쿠테이키(作庭記)**』를 역서로 출간하였다. “사쿠테이키는 약 천 년 전 일본 헤이안 시대에 다치바나노 도시쓰나가 쓴 것으로, 정원 만들기기에 대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지침서이다. 이 책은 일본 교토예술대학 다케이 지로 교수와 조경가 마크 킨이 함께 영문으로 펴낸 ‘사쿠테이키 해설서’와 ‘사쿠테이키’의 원문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고대 동양세계의 문화가 축적된 ‘사쿠테이키’에는 헤이안 시대 사람들이 정원에 엮어 넣었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풍경에 대한 간결한 묘사를 비롯하여 가족들에게 편안함과 복락을 주는 장소로 기획되었던 정원의 기능, 불교적 상징인 경물, 헤이안 시대에 유행한 복잡한 금기체계 등 ‘돌의 언어로 묘사된 자연풍경의 시’라 불렸던 일본 정원의 기원을 만나볼 수 있다. 나아가 일본 정원문화의 원류뿐만 아니라 천 년 전 동아시아 문화교섭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다르게 꽃핀 동양의 정원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보문고 책소개, <http://www.kyobobook.co.kr> 인용〉

(사쿠테이키 일본 정원의 미학/ 다치바나노 도시쓰나, 다케이 지로, 마크 킨 지음/ 김승윤 옮김/ 연암서가/ 2012/ 280쪽)



이민부의 세상을 담은 지리교실

이민부(계획 11회)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5월에 교양서 『**이민부의 세상을 담은 지리교실**』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홈페이지와 저자 이민부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보완하여 묶은 것이다. 우리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이슈를 지리적으로 흥미롭게 풀어냈다. 본문은 커피가 재배되는 곳의 지리와 커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 지구 온난화가 이슈가 되는 가운데 한파와 폭설이 발생하는 이유, 문학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지리와 공간을 통해 옛보는 인간의 생활 등 자연, 사회, 경제, 문학을 넘나들며 다양한 주제 속 지리에 관해 다루었다. 진화하고 변화하는 공간과 지역과 장소를 지리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보문고 책소개, <http://www.kyobobook.co.kr> 인용〉

(이민부의 세상을 담은 지리교실/ 이민부 지음/ 푸른길/ 2012/ 248쪽)



기후변화, 25인의 전문가가 답하다

김선희(계획 15회)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의찬**(계획 18회)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 융합학과 교수, **정해봉**(도시환경최고위과정 17기) 에코프론티어 대표이사 외 22인은 지난 3월 『**기후변화, 25인의 전문가가 답하다**』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적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5 명이 저자로 참여하여 저술한 것이다. 기후변화의 현상과 영향,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관련한 저탄소 정책뿐 아니라, 기후변화가 산업에 주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꼭 논의해야 할 핵심 분야를 상세히 짚어주면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특수성을 반영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보문고 책소개, <http://www.kyobobook.co.kr> 인용〉

(기후변화, 25인의 전문가가 답하다/ 전의찬 지음/ 지오북/ 2012/ 5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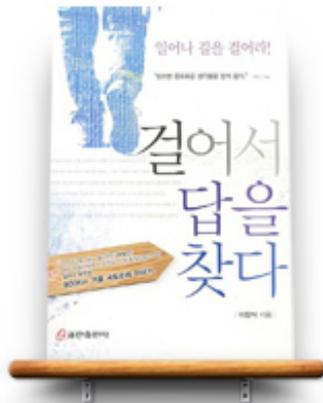


부동산과 기업승계

정운경(도시환경최고위과정 4기) ㈜에코월드 대표이사는 4월 6일자로 『**부동산과 기업승계**』를 출간하였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자문 전문상담사 정운경의 『부동산과 기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와 관리를 넘어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 따른 기업승계까지 고려하도록 저술한 것이다. 기업승계시점에서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위해 조세부담에 대응할 조세담세전략을 미리 세워나가도록 이끈다.”

〈교보문고 책소개, <http://www.kyobobook.co.kr> 인용〉

(부동산과 기업승계/ 정운경 지음/ 생각나문/ 2012/ 184쪽)



걸어서 답을 찾다

이창식(도시환경최고위과정 13기) 우리편드서비스대표는 2011년 1월 1일부터 29일까지 약 한달에 걸쳐 해남 땅끝마을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걸어서 완주한 국토순례의 기록을 담고 있는 『**걸어서 답을 찾다**』를 출간하였다. “많은 손길을 과감히 뿌리치고 홀로 겨울 국토순례를 다녀온 저자가 겨울 광야에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걷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교보문고 책소개, <http://www.kyobobook.co.kr> 인용〉

(걸어서 답을 찾다/ 이창식 지음/ 쿡란출판사/ 2012/ 40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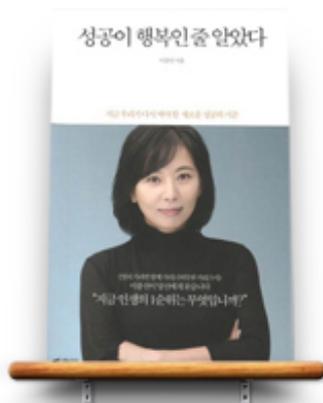


오만가지심리와 열두제자

이종호(도시환경최고위과정 16기) 서울사회심리치료센터 원장은 6월 11일 『**오만가지 심리와 열두제자**』를 출간하였다. “이종호 원장은 수많은 상담과 치료해 오면서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심리적 고통은 나쁜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번에 출간된 도서 『오만가지심리와 열두제자』는 이종호 원장이 상담한 293건의 길고 짧은 정신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엮여졌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다.”

〈김양연 (2012.06.29), 하이닥 뉴스, <http://www.hidoc.co.kr> 인용〉

(오만가지심리와 열두제자/ 이종호 지음/ 출판사 퍼플/ 2012/ 446쪽)



성공이 행복인줄 알았다

이종선(도시환경최고위과정 23기) ㈜이미지 디자인 컨설팅 대표는 지난 5월 15일 『**성공이 행복인줄 알았다**』를 출간하였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500여 명의 리더들을 컨설팅 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CEO 컨설턴트이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와 『따뜻한 카리스마』로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저자 이종선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하게 성공하는 비법을 제시하였다. 일 중독증 판정을 받았을 만큼 성공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 왔던 저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비로소 깨달게 된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일과 인생의 균형을 잡고 행복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신의 강점을 찾는 법, 스트레스 없이 일하는 법,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법 등 일과 인생의 균형을 유지하는 저자만의 솔루션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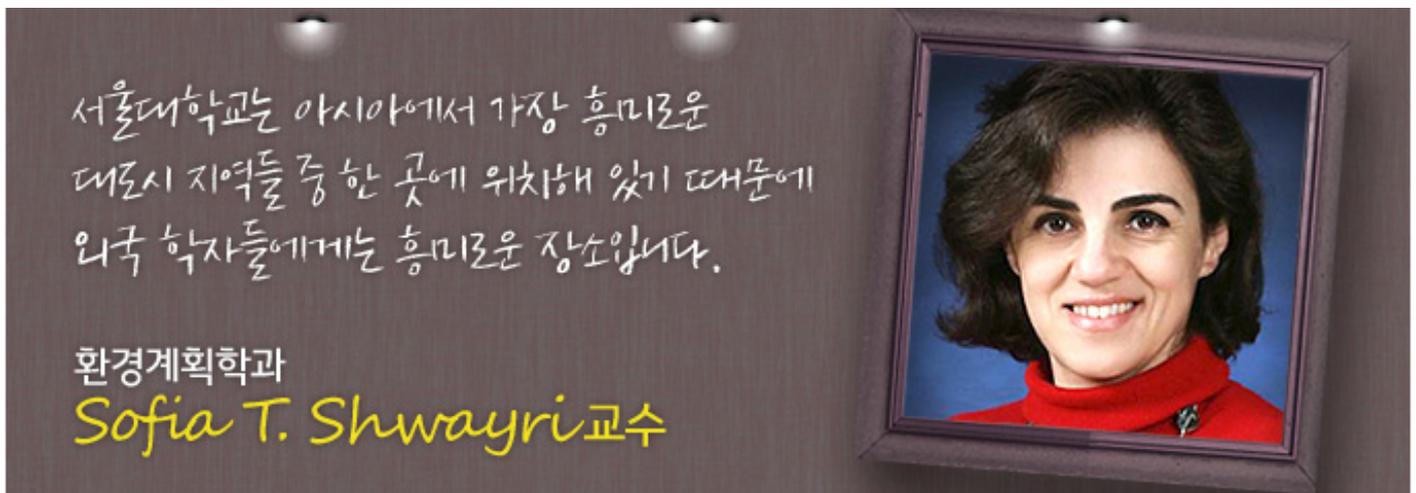
〈교보문고 책소개, <http://www.kyobobook.co.kr> 인용〉

(성공이 행복인줄 알았다/ 이종선 지음/ 캘리온/ 2012/ 320쪽)

인터뷰

11

세계적 명문대학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서울대학교의 발전목표와 정부정책에 따라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외국인 학자들이 전임교수로 임용되었다. 환경대학원에도 2009년 환경계획학과의 Sofia T. Shwayri 교수, 환경조경학과의 Wybe P. Kuitert 교수가 부임하였다. 이들 외국인 교수들은 석·박사과정을 대상으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임한 지 3년이 지나면서 2012년 2학기부터 연구년에 들어간 두 외국인 교수들에게 환경대학원에서의 강의와 연구, 그리고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들어본다.



1. 담당과목: 어떤 과목들을 맡고 계신가요? 각 과목의 목표와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수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특별한 교수법이 있으신지요? 가령 어떤 교재와 수업자료를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맡으신 과목들은 오늘의 도시계획 이슈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석사과정 수업으로는 '글로벌도시계획론(International Planning and Development)'과 '사회·커뮤니티계획(Social and Community Planning)'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글로벌도시계획론 (International Planning and Development: 가을학기)

수업제목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지난 두 세기 동안 계획과 개발의 영역을 지배해온 이론과 실천들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룹니다. 이 수업은 갈수록 도시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세계화, 전쟁, 폭력, 국제이주와 같은 힘들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비공식성(informal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같은 현대도시의 이슈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도시계획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개발과 저개발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들이 사용한 계획전략과 개발접근들을 학습하고, 이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커뮤니티계획 (Social and Community Planning: 봄학기)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사회 및 커뮤니티 계획의 역사와, 19세기 사회·커뮤니티계획의 도입 이후 이 분야를 형성해온 이론적 관점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과목은 관련 이슈들을 도출하고, 도시환경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집단들의 필요와 가치에 대해 탐구합니다. 즉, 현대 도시사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커뮤니티가 있으며, 이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때로 대립되기도 한다는 점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하의 도시환경에서 계획가들이 늘 마주하는 문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석사과정의 수업은 학생들이 한국의 도시나 세계의 다른 도시들에 대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들을 섭렵하면서, 각자의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박사과정의 '도시계획사연구(Studies in Planning History)'와 '계획이론연구(Studies in Planning Theory)'는 계획사와 계획이론에 대한 개론수업을 마친 학생들을 위한 수업으로서 고급단계의 계획사와 계획이론 세미나입니다.

도시계획사연구 (Studies in Planning History: 봄학기)

수업의 목표는 19세기에서 현재에 걸친 과거를 해석하고 기술하기 위해 역사가들이 사용한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여러 접근방법들에 익숙해지게 하고 다음으로 다수의 고전적인 계획사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게 합니다. 특히 후자는 학생들이 다양한 접근방법들의 장점과 한계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계획이론연구 (Studies in Planning Theory: 가을학기)

본 수업은 이론에 기초를 두면서, 계획분야에서 다양한 입장과 방향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서로 다른 사회적 아젠다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실천영역에 대한 계획이론의 영향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 수업은 20세기를 지배하고 21세기의 시작을 특징지었던 계획 패러다임을 탐구하기 위해 서양의 연구물들, 특히 미국과 관련한 수업자료들을 주로 사용할 것입니다. 매주의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계획이론과 실천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보게 됩니다.

2. 수업방식: 교수님만의 특별한 교수방식이 있으신지요. 그 방법들은 어떤 면에서 효과적입니까? 교수님의 수업은 얼마나 뻑뻑한 편인가요? 학생들은 잘 따라오나요? 훌륭한 전문가와 학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원 과목들을 매주의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읽을거리를 부여 받고 그에 대한 토론을 준비해 올 것이 기대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관심에 기초하여 수업자료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업의 초점은 대학원생들을 지식의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훈련시키는데 있습니다. 환경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어느 정도 한국에서의 교육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수업의 내용이 교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은데,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영어로 쓰인 학술자료들을 읽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과제는 적어도 다른 두 과목을 함께 들어야 하는 풀타임의(full-timer) 학생들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연구: 환경대학원 뉴스레터를 통해 연구와 관련한 교수님의 학술회의 참가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앞으로 나올 출간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서울대학교에 부임해온 이후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는 도시와 갈등에 대한 관심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베이루트(Beirut)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공간적 발현(manifestation)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관심사를 넓히는 것인데 이는 지금까지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보호국이었던 베이루트와 다마스쿠스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동맹세력에 의해 점령되면서 이것이 두 도시국가의 문화적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방법으로, 전쟁 동안의 문화적 생활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 있는 Francoise Taliano-des 교수가 편찬한 『점령 하의 도시와 문화: 프랑스적 경험과 비교적 관점(Villes et culture sous l'Occupation: Expériences françaises et perspectives comparées)』의 한 챕터에 담겨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연구는 보다 최근의 관심사와 영역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특히 구체적으로 한국의 에코시티(ecocities)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의 두 번째 학기에 고위정책과정 송도답사에 참여하면서 이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때부터, 동북아시아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이자 세계 최초로 사람이 거주하는 지속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시가 될 이 새로운 도시에 대한 계획과 개발의 정치에 대해 연구해 왔죠. 결과적으로 송도는 미래의 에코시티를 열망하는 도시들이 따르고자 하는 개발모델이 되었습니다. 송도에 대한 제 연구를 세 군데의 학술회의에서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열린 것이었고 마지막은 뉴욕의 미국지리학회(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에서였습니다. 존스홉킨스에서 학술회의를 계기로 송도에 대한 제 논문을 포함한 'The Journal of Urban Technology' 의 에코시티에 대한 특집판이 최근 출간 예정에 있습니다.

4. 서울대학교의 외국인 교수: 환경대학원에 오신지 3년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오기 전 교수님의 학문적 배경과 그간 맡으셨던 프로젝트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외국인 교수의 채용은 서울대학교 교육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화 움직임에 찬성 혹은 반대의견이 있으신지요? 서울대학교와 환경대학원은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뉴욕대학교에서 3년을 지낸 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1년간의 방문교수 생활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에 왔습니다. 뉴욕대학교에서는 사회과학대학원(The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의 John Draper Interdisciplinary Program에서 도시분야 조교수로 있으면서 현대도시에 대한 네 과목을 맡아 가르쳤습니다. 환경대학원에서 맡은 일은 뉴욕대학교에서 제가 했던 일들과 많은 부분 유사한데 이는 환경대학원에서의 생활이 매력적인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대학원에서 저는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두 번째로 현대 도시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과목들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온 첫 세대 외국인 교수가 된 것은 분명히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친절하고, 우호적이며 따뜻한 한국인들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본부나 학과들은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구조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 방식은 변하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있어 영어로 된 안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어를 할 수 있는 행정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고려도 없었습니다. 결국 외국인 교수들은 그들의 업무를 제 3자를 통해 처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편 외국인 교수들은 그들이 채용될 때 약속 받았던 것처럼 한국어와 함께 영어가 공식적인 행정언어로서 점차 도입되길 바랐지만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을 보내며, 외국인 교수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를 기대하는 시선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외국인 교수들을 위한 적절한 한국어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교수는 극소수이며, 대학당국이 외국인 교수를 채용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던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교수들은 전임교원으로서의 강의와 연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기대되고 있습니다.

5. 생활: 서울에서의 주거, 음식, 언어 등 전반적인 생활은 어떠한지, 서울과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서울에 있지 않았다면, 그래서 서울이라는 아시아 대도시의 거리, 재래시장, 전통적인 동네, 풍부한 야간문화를 경험할 수 없었다면, 솔직히 서울대학교는 다소 실망스러운 곳이었을 겁니다. 서울대학교는 아시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도시 지역들 중 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국 학자들에게는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학문적 전통과 역사가 풍부한 영국의 옥스퍼드를 뒤로 하고 제가 서울에 온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지적 환경의 측면에서는 다른 곳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옥스퍼드는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와 도시의 일상생활 중 평범한 장소에서의 대화에서도 지식의 생산이 일어나는 곳이지요. 언어와 문화라는 두 가지 도전을 맞닥뜨린 외국인 교수들에게, 서울대학교에서의 이러한 대화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학교 밖에서 이러한 배움의 대화를 가집니다. 서울의 지하철과 거리, 카페와 나이트클럽, 그리고 서울과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들에서 이러한 대화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6. 연구년: 2012년 2학기부터 반년간의 연구년 동안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 2012년 가을에는 UC Berkeley에서 출판원고 작업을 하며 안식년을 가질 계획입니다. 책의 주제는 1975~1990년에 이르는 전쟁 기간 중의 베이루트(Beirut)인데 구체적으로는 도시가 어떻게 반복되는 전쟁의 무대가 되었는지, 이처럼 긴 전쟁이 결과적으로 베이루트의 사회구조를 어떻게 형성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경대학원은
혁신적인 연구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좋은 학생은 이를 위한 핵심입니다.

환경조경학과
Wybe Kuitert 교수



1. 담당과목: 어떤 과목들을 맡고 계신가요? 각 과목의 목표와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수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특별한 교수법이 있으신지요? 가령 어떤 교재와 수업자료를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맡으신 과목들은 오늘의 환경디자인 이슈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4년간 단지설계 스튜디오(Site Design Studio) 과목을 담당했습니다. 관악캠퍼스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매우 즐거웠습니다. 학생들은 관악캠퍼스를 개선하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정문 일대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디자인을 제시한 2012년 봄 학기가 좋았습니다. 이것은 곧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단지설계 수업에서 했던 작업은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issuu.com/kimsoonki/docs/sitesdesign>

http://issuu.com/contro71/docs/site_design_2010

http://issuu.com/contro71/docs/pdf_booklet_2011_spring

'단지설계' 스튜디오는 교과목 개편에 따라 더 이상 개설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다음과 같은 과목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경관체계분석 세미나 (Seminar on Landscape System Analysis: 봄학기)

경관(landscape)은 지질, 토양, 물, 식생, 야생동식물, 도시 및 농촌적 토지이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입니다. 우리는 이들 요소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연구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의 구조로서 서로 연관된 체계로서 이들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경관은 하나의 생태적 체계로 기능합니다. 왜냐하면 식생과 토양, 물과 도시경관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계된 응집체(coherency)이니까요, 이렇게 경관이 하나로 응집되어 있으면 우리의 공간인식(spatial cognition)을 강화시킵니다. 즉, 경관이 사람들에게 보다 잘 읽히게(readable) 되는데, 이는 개인과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생태계를 계획할 때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는 경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매주 교수와 만나 경관체계분석 (Landscape System Analysis)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게 됩니다. 토론을 위해 학생들은 선정된 주제에 대한 짧은 소개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경관의 역사 (Landscape History: 봄학기)

경관은 인간에 의해 장소가 만들어지고 이용되는 것입니다. 도시일 수도, 농촌일 수도 있습니다. 경관은 만들어 지고 나면 다시 사람들의 정신을 보다 고양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인간들이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로 그들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방식과 이를 통한 다양한 정신적 결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시대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성공 및 실패사례를 배움으로써 앞으로의 디자인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고자 합니다. 이 수업은 몇 가지 주제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경관이 시간, 계절, 사랑, 권력, 토양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주의, 패션 같은 요소의 영향도 다루어 질 것입니다.

경관사상 읽기 (Readings in Landscape Thought: 가을학기)

이 수업은 경관사상에 대해 현존하는 중요한 연구물이나 관련된 텍스트들을 공부함으로써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그들의 학위논문 주제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고, 기존의 조경 지식과 실천에 이론적으로 보다 포괄되는 연구 결과를 내도록 도울 것입니다. 고전적인 경관문헌들과 현대적, 철학적 연구물, 산문 등에서의 발췌문을 읽으며 경관을 마주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복잡한 정신작용을 넓은 시각에서 탐구할 것입니다. 석사과정학생의 경우 조경을 다른 분야와의 관련 맥락에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박사과정학생은 여기에 더하여 이 맥락을 넘어서 조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논의가 무르익으면 학생들 스스로가 수업을 위한 영문 텍스트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영어 독해 능력을 가져야 하고, 제시된 주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업에서 읽을 독서물의 몇 가지 예입니다.

- Thoreau, *Walden, and On the Duty of Civil Disobedience*
- Rousseau, *Discourse on the Arts and Sciences*
- *Introduction to Philosophy of Science* (Ladyman, Rosenberg, others)
- Tafuri, *Architecture and Utopia*
- Jared Diamond, *Collapse*
- Geoffrey Broadbent, *Emerging Concepts*

2. 수업방식: 교수님만의 특별한 교수방식이 있으신지요. 그 방법들은 어떤 면에서 효과적입니까? 교수님의 수업은 얼마나 뻑뻑한 편인가요? 학생들은 잘 따라오나요? 훌륭한 전문가와 학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상상력과 비판적 감각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좋은 점수를 얻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던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대로 양성되지 못했습니다. 환경대학원의 학생들은 후에 사회에서 중요하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아마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한 아이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수업 중 토론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수업과 스튜디오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장려합니다. 꼭 많은 책과 논문들을 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우수하여야 하고, 남의 것을 답습한 것이 아닌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 낸 독창적인 것(original)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생으로서 교수와 그의 연구에 매우 가까워야 합니다. 적어도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학생들은 그들의 교수가 속한 분야에서 그의 활동을 보며 배우고, 교수들은 학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배웁니다. 학생들의 일상을 보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사회의 발전에 제 자신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매일 깨닫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새로운 세대로서 그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직관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 저는 제 연구의 중요한 동기를 얻습니다. 석사과정 학생들은 제가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연구분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들만의 사고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연구분야를 여는 방법이 될 것 입니다. 교수가 그의 지식을 공백상태의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학생들로부터 비록 미숙하지만 순수한 아이디어를 듣고 이것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주제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대학원은 혁신적인 연구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좋은 학생은 이를 위한 핵심입니다.

3. 연구: 환경대학원 뉴스레터를 통해 연구와 관련한 교수님의 학술회의 참가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앞으로 나올 출간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얼마 전 사라예보에서 열린 IUFRO에서 '도쿄의 도시삼림과 거버넌스의 현대화(Modernizing urban forestry and governance in Tokyo)'를 발표했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었었는데 미국, 독일, 중국 등 잘 알려진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그리스, 터키, 보스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지에서 온 총명하고 열정적인 학생들과 젊은 학자들 또한 많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시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계화는 곧 탈영토화라는 것을 사라예보에서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에 대한 발표는 곧 출간될 책 중 일부 내용이었지만 저는 이미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할 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국제회의에서 각자의 확장된 아이디어를 시험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면한 주제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반응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곧 나올 세 가지 출간물입니다.

Gardens and Landscapes in Japan: 1650-1950 (2013). 이 책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될 예정으로, 자연주의 관점에서 일본의 경관과 건축의 역사를 재해석합니다.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와 관련한 역사 연구에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약 20년 동안 이 작업을 해왔는데 마침내 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Composition of Scenery in Pre-modern Japanese Gardens" (2013) 은 정원역사저널(Garden History Journal)에 실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일본정원의 중국성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최근 일본연구 분야에서는 일본연구를 아시아연구로 넓히려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논문은 이러한 동향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일본정원의 공간적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본정원에 대한 공허한 이야기들이 다수 존재하는 가운데, 보다 실용적이고 확고한 저작물을 내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Urban Landscape Systems" (2013) 은 곧 발표될 논문입니다. 다소 이론적인 성격의 논문인데,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달라 여러 차례 수정을 요청 받았고 많은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지질학과 도시 형태는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고, 이것이 회복성(resilience)과 정체성(identity)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에 어떤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도시 오픈 스페이스 스튜디오(Urban Open Space Studio)'에서 다룬 내용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며, 학생들의 조언 역시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간까지 많은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이외에도 학생의 도움을 받아가며 서울의 경관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라예보에서 발표 한 것처럼 동경의 도시그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후에 논문으로 출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서울대학교의 외국인 교수: 환경대학원에 오신지 3년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오기 전 교수님의 학문적 배경과 그간 맡으셨던 프로젝트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외국인 교수의 채용은 서울대학교 교육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화 움직임에 찬성 혹은 반대의견이 있으신지요? 서울대학교와 환경대학원은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에 오기 전 교토에서 8년 동안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1975년부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일을 마다하지 않고 맡아 왔는데, 그 결과 Harvard at Dumbarton Oaks, The Chinese Architects Council, Unesco in Nara,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Philosophy in Paris 등과 같이 권위 있는 기관들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포함해, 아주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제 홈페이지(www.wybekuitert.nl)를 참고하세요.

서울대학교가 글로벌 수준의 대학(global-standard university)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며, 서울대학교에서 저를 채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세계화는 한 세대의 시간이 걸릴 것인데, 이는 서울대의 내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스타일의 대학교를 추구하기보다 국제적으로 개방된 대학교로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성원을 국제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외에서 공부한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을 채용하는 것은 그리 효과가 클 것 같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저명한 교수라 하더라도, 그들은 기존의 서울대학교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화에 관련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는 바꾸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제 고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절반 크기인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1/3 정도로 세계 어느 국가도 네덜란드어를 사용하지 않죠. 때문에 우리는 네덜란드 인구의 큰 나라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저에게는 두 분의 독일 교수님이 계셨고, 저는 우리 과의 독일 학생들과 함께 베를린에 가서 조경관련 자원봉사를 하거나 직접 동 베를린의 공산주의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학생들은 독일(비록 독일인들은 전쟁 중에 많은 네덜란드 인들을 학살했지만), 프랑스, 영국에 대해 열성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한국 학생들은 러시아, 중국, 일본에 그다지 관심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 전문가인 저에게 다소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한국의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수업 중에 한국의 근린국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환경대학원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 교수님들이 직접 오신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대학원이 한국 정부를 위한 기관이기보다는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 생활: 서울에서의 주거, 음식, 언어 등 전반적인 생활은 어떠한지, 서울과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역동적인 서울을 매우 좋아합니다. 어딘가를 걷는 것은 항상 놀라운 경험이지요. 서울의 거리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과다한 복지정책으로 다수의 사람이 국가에 의존하기만 하는 유럽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서울의 지하철-버스 체계는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유행의 첨단을 걷는 멜로드라마 같은 젊은이들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돈을 어디서 얻는 거죠?) 이와 같은 극명한 대조는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론 오싹하기도 합니다.

캠퍼스 주위로는 멋진 숲이 있어서 저는 그곳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식생이 풍부하고 종도 아주 다채로워요. 변이성(變異性)도 폭넓습니다. 봄에는 새들이 아주 많아요. 5월에 매일같이, 그리고 놀랍게도 밤새도록 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노랫소리는 매우 간단하게 '라-술-술-파'로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많은 시인들은 이에 대한 시를 썼음이 틀림없습니다. 제게 이 메일을 보내 그 이름을 알려주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